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11월 17일(월) 제701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변해철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용인, 고희철·임정민 조 당선

서울 총학선거 25 · 26일 경선

용 인

지난 12일(화), 13일(수) 양일간 치러진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서 '7천의 꿈, 백만과 함께'를 모토로 단독출마한 고희철(인문·언어 4)·임정민(경상·무역 4)군이 당선됐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개표결과 재적인원 6,130명 중 3,174명이 선거에 참여 51.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2,485명(79.13%)이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622표, 무효는 45표가 나왔다.

한편, 이날 함께 개표한 서양학대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재적인원 1883명 중 946명(50.77%)이 참여하여 치열한 접전끝에 547표(57.22%)를 얻은 기호 1번 이정일(서학·영어 3)군이 11대 서양학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대학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회장 선거에서는 재적인원 594명 중 308명이 투표하여 281명(90.94%)의 지지를 얻은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3)군이 당선되었다.

이날 19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고희철군은 당선소감으로 "지난 학생운동 패배의 역사를 뒤로하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 역사가 증명하는 청년학생의 본분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임정민군은 "학점, 취업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대학생활의 꿈을 포기한 학우들을 보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1대 서양학대 학생회장 당선자 이정일군은 "원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10대 서대장이 연행된 관계로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며 "지난 서대 10년의 역사를 올바로 평가·정리하고 새롭게 10년을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자연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김영필(자연·물리 4)군이, 종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는 배선혜(서학·영어 2)·박희정(서학·영어 2)조가 단독출마 하였으며 오는 18(화), 19일(수) 양일간 투표가 진행된다.

서 울

오는 25일(화)·26일(수) 치러지는 서울배움터 32대 총학생회 후보로는 기호1번 노선호(서양·영어 3)·김세윤(동양·태국어 3)조와 기호2번 오승훈(상경·경영 4)·강성삼(사회·신방 4)조가 최종 등록했다. 이에 양후보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학내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선거운동의 공식일정으로 오는 20일(목) 2시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공동유세와 같은 날 5시 시청각 건물 210호에서 열리는 언론협의회(학보사·디 아거스·교지편집위원회·방송국)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정견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견토론회에서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패널로 참가,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학생들의 질의질문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토론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형동(서양·영어 4)군은 "이미 지보다 정책대결이 중심이 되고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선거를 이룰 것"이라며 투표당일 기표소근처에 선거운동원 접근 금지, 지나친 문예선전 자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단대 선거일정 11면 참조

홍연화·서윤경 기자

지난 12일(수)·13일(목) 양일간 치뤄진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7천의 꿈, 백만과 함께'를 모토로 단독 출마한 고희철·임정민 군이 79.13%의 찬성을로 당선되었다.

임승희 기자

만나보기 - 용인 배움터 19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고희철군

"학생들의 힘으로 한총련 혁신 이룰터"

지난 13일(목)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고희철(인문·언어 4)·임정민(경상·무역 4)조가 단독출마하여 79.1%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내년 용인배움터를 책임질 19대 총학생회장 고희철군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내년의 상을 그려보도록 한다. 편집자

19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소감은

기쁜 마음보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학우들이 믿고 지지해준 만큼 열심히 하겠다.

예상보다 반대표(약 20%)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반대표는 우리에게 많은 비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학우들이 비판한 만큼 한총련과 학생회를 올곧게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계획이 있다면

학우들에게 약속한 등록금 12% 인상 저지를 위해 전국적 상황을 돌아볼 예정이며, 곧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들을 서울대에서 만나 학생운동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학우들이 한총련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제시한 한총련의 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학생들의 힘으로 한총련을 새롭게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

공안당국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다. 얼마전 서대장과 공대장이 연행되었고 그 외에도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 학교도 이의 일환으로 학생자치권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학생자치권을 사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음으로 학생자치권 사수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우선 지지해준 왕산 7천학우들께 감사드린다. 여러 공약을 냈으나 학우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므로 학우들이 총학생회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한 총학생회장으로서 길을 충실히 가는지 지켜봐 주고 많은 비판과 격려를 해주면 감사하겠다. 명재권 기자

지면안내

아! 학생회 선거철이랏 · · · · · · · · · · · · · · · · · · 3면
학생회 선거가 재철만나 각종 이슈가 물밀듯.
정책대결도 좋지만 과당경쟁은 자제해야죠.

박정희 신드롬 해부 · 5면
경제위기와 영남표밭을 겨냥해 한 대통령후보가 '박정희'를 부르짖고 있는데…
과거로 회귀하는 '세대교체!' 그 정체는?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 · · · · · · · · · · · · 6면
스포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스포츠 열풍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 현상이 스포츠 열풍을 일으키는가?

인권하루소식 1000호 발행기념 팸팡 · · · · · · · · · · 8면
지난 4년간 인권침해없는 세상위해 매일매일 발행했건만, 내일도 인권하루소식이 나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총련 의장 강위원군 15년 구형

오는 25일 선고 공판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강위원(전남대 29대 총학생회장, 국문·4, 제적)군의 2차 공판이 지난 11월 6일(목) 오후 6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2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한총련 의장 강위원군은 징역 15년, 벌금 500만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변호사의 반대심문으로 시작된 이날 공판에서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기하며, 고등학교 재학시절 전교조와 관련해 수감생활을 한 것부터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등의 한총련 강령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강위원 의장에게 확인했다. 그리고 류재을 열사와 관련한 내용, 전남대 97 새봄학교 자료집·전학대회 자료집 등 제반 사업과 관련한 내용, 범청학련 활동과 관련된 내용 등을 강위원 의장에게 변호심문을 했다.

이날 강위원 의장은 법정진술에서 "친북·이적성의 엄청난 조지이리면서, 의장에게 15년을 살라고 하면서, 탈퇴서 한장만 쓰면 사면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도하는가?"라며 "나는 재판부에게 현실과 법의 괴리속에서 기존 관례를 뒤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정의 권위를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위원 의장의 선고일은 오는 11월 25일(화)이다.

허윤숙 기자

알림

본보는 3면, 9면 만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능있고 감각있는 만화가자를 모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비의자 무관심의 파장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학교 밖에서는 대선이, 학내에서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진행중이다.

학생회 선거때가 되면 교내 곳곳에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돌아다닌다. 대자보 판에는 00과 혹은 00단대, 총학생회의 후보 등록자들의 사진과 글귀가 담긴 포스터 등이 가을 단풍 못지 않게 다채롭게 붙는다. 학생들도 그런 포스터들을 보면서 이 후보가 잘생겼다는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후보의 학생운동에 관한 의견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학생회 후보가 내세우는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으로, 배운 바 지식의 현현(顯現)을 통해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아울러 건실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곳이라 한다. 그리고 학생회는 학생복지 및 권익향상 등 제반 학내 민주화 작업을 위한 학생자치기구라는 학내에서의 정체성과 학내에서의 구성과 운영과정 속에서 축적된 학내 민주역량을 결집한 대사회민주화 작업을 하는 학외에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의 자세는 자신의 의견과 이익을 후보가 내세울 공약을 통해 강제하고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하며 투표 이후에도 공약이 잘 실현되고 있는 지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철에 즈음하여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학교 밖 대선은 제쳐 두고라도) 명실상부한 학생회를 통한 의견 개진은 커녕 학생회를 이끌어 갈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단지 제도권 언론의 관점처럼 이번에는 어떤 계파가 학생회를 '잡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20~30대의 투표율이 여당이나 부패당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라고 한다. 20~30대는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학생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권리의 발현인 투표로 학생으로서의 학내에서의 여타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운동을 하는 몇몇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의 무관심은 스스로 학생권리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몇몇 사람만을 위한 학생회가 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올바른 학생회가 서지 않는다면, 학생회의 학외적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허윤숙

서울 배움터 정견 토론회

부분을 보고,

혹시, 공통으로 착각?

흔히 사람들은 수박을 고를 때,
작은 부분만을 보고 그 수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익은 것으로만 알았던 수박이 생각과는 달리
익지 않았거나, 상했던 사실을
우리들은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들 사선에 비춰진 사실들은 작은 부분일 뿐
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정견토론회는 부분만이 아닌 숨겨진 진실까지 밝히려는
자리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리-정견토론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외대인여러분의 자리이고 싶습니다.

▣ 일시: 11월 20일 (목요일) 늦은 5시
▣ 장소: 2건물 시청각실
▣ 주최: 하나됨을 위해 전진하는 단결언론협의회
3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 설

국민중심의 영장실질심사제로

최근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판사가 구속전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그 구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난 1995년 12월 29일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금년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실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작년대비 9월 말현재 구속자수가 약 2만명정도 줄어들었고 영장기각률은 작년 7.2%에 비해 18.4%로 늘었으며, 상대적으로 검찰는 신중해져 작년보다 1만명정도 영장청구 인원이 줄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충돌은 이 제도의 도입이전부터 시작하여 시행중에도 계속되어 왔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한 피의자를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임시로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대립을 비롯하여,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대부분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심문을 강행함으로써 피의자 호송을 위한 수사인력부족, 체포상태의 장기화, 경찰의 영장신청기피 등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의 영장실질심사제의 개정에 관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8월 자민련의 이건개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은 현재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쟁소 검찰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법원의 개정반대의견이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변협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 모두가 국민의 인권보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심문여부를 피의자의 의사에 맡기도록 하는 것은 환장이며 판사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문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기관이 불심문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며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심문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의자를 법원이 기어이 심문하겠다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이러한 양자의 의견대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특히 양자가 내세우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양자가 지적하는 부정적인 면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법사위에서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현재 양측 주장의 부정적인 면을 보완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유전(有錢)심문 무전(無錢)불심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장래는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실명금융거래와 그 비밀보장을 통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고 이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끊임없는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십수년간의 논외끝에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된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가 주장되고 있다. 전경련은 금융실명제가 현재의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하며 예금의 비밀보장을 비롯한 금융관행 및 제도정착 등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전면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정부가 이른바 문민정부의 기치를 높히 들고 이루어놓은 실적중의 하나가 정권말기를 맞아 흔들리는 정도를 지나 뿌리채 흡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우선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천의지가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아들'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관리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그 스스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의 금융실명제위반 정치자금관리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재계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민간저축률을 하락시키고 과소비를 조장하였으며 자금경색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제불황에 대해 경제인으로서 져야할 책임의 회피에 불과하다.

과거 정경유착의 튼튼한(?) 토대위에서의 기업경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모 그룹회장아들에의 변칙적인 재산상속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곧 체결될 OECD의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해서도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는 절실하다. 장롱속에 숨어있는 돈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까지도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법을 지켜온 대다수의 국민들과의 형평성이 강조돼야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춥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나우누리(OEDAE))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권행사를 성실히

요즘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찍고 싶은 당과 후보가 없다고 한다. 또한 진보세력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어느새 깊숙히 들어선 정치적 불신과 허무주의, 냉소… 이 속에서 진보세력이 아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대선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선거권이 없는 내가 오히려 부럽다고도 했다. 선거나 투표라고 해봤자 고등학교때 치룬 학생회장 선거가 전부였지만 주권의 구체적인 행사인 선거권을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선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주권의 구체적인 행사는 선거권으로 대변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기본 체제들이 유동성의 성질을 가지고 민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는 감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기까지는 무수한 고민과 갈등이 따를 테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세계는 변해봤자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되겠다.

공미경(서양·포르투갈어 1)

운동장은 우리 모두의 것

가을이라서 그런지 외대 이문교정의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는 많은 운동 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좁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각 운동부들이 5시 이후의 운동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과 체육대회가 있어서 오후 5시까지 운동장을 빌렸다. 당연히 5시 이후는 체육기자재실에서 빌려주지 않았고 빌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체육대회의 진행이 조금 지연될 경우 운동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당일 5시가 넘어갔을 때, 축구부가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운동장에서 모두 나가라고 했다. 아구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말다툼 끝에 축구부에게 운동장을 내주었다. 축구부는 1년내내 월, 수, 금요일의 5시 이후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5시 이후의 운동장 사용은 체육기자재실에 가서 신청해도 소용이 없으며, 축구부의 허락을 맡고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왕 시작한 아구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부탁했다. 아구경기가 본관 쪽 운동장에서 운동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대편 쪽 절반을 축구부가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축구부가 굳이 연습의 편의를 위해서 본관 쪽 운동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가 반대편에서 아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그들은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체육대회를 끝내지 못한 채, 과의 많은 복학생들과 현역 재학생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과의 체육대회는 1년에 한두번밖에 없는 행사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생들은 과 체육대회나 각 운동부 주최의 과대항 경기대회가 있지 않는 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후 4~5시가 지나야 수업이 끝나는 학생들도 많기에, 많은 학생들이 오후 늦은 시간때에 운동장을 사용하려 한다. 그 시간만 되면 축구부 외에 다른 학우들은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사용할수 없다는 말인가.

학교의 대운동장은 각 학교마다 거의 하나씩 있는 모든 학우들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다. 운동장은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든 학우들의 소유물이다.

김태균(사회·신문방송학 2)

스쿨버스를 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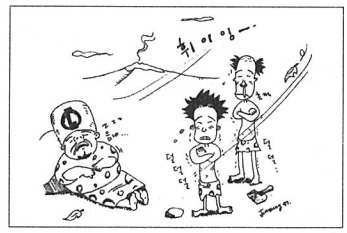
우리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이나 인천, 분당 등 수도권 지역에서 통학을 한다. 용인군 모현면에 위치한 외대 용인배움터에 오기 위해 우리는 좌석버스를 타고 보통 한두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심한 경우 강서, 인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세시간 정도 걸린다.

시간이 금이라는 옛 말도 있듯이 우리가 과연 금쪽같은 시간들을 몇시간동안 버스안에서 소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좌석버스들은 광주나 분당 등을 너무나 빙빙 돌고 있다. 특히 하교길 오후 6시 정도 집으로 향하는 좌석버스는 거의 거북이 걸음이다. 거기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출발지에서 학교까지 곧장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아낄까. 그 정답은 스쿨버스다. 현재 운영중인 스쿨버스는 너무나 횟수가 적을 뿐 아니라 사당이 출발지라 강북지역의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사당에서 출발하는 스쿨버스가 학교까지 도착하는 데는 불과 1시간이 안걸린다.

만약 스쿨버스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당, 잠실, 천호, 영등포 등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4년간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스쿨버스의 이용으로 시간을 줄인 우리는 그 시간만큼 아니면 더 많이 대학생활을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훈(물리·화학부 1)

독 자 만 평



취업빙하기라던데 우리 추장님은 왜이리 태평하실까?

박준성(동구·체코 3)

명수필 국보법의 폐지로 나라를 살리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달랐으나, 엄격한 법치국가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았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약사발을 받은 일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스파르타에서 왕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듯하다. 기원전 395년에 스파르타의 왕 파우사니아스는 테베 군과의 전투에서 범한 작전상의 실수로 사형을 선고받고 외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여남은 해의 망명생활 끝에 외국에서 병으로 죽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동정하지만, 그때의 사정으로 보아 그의 죽음은 당연했던 듯하다. 그의 죄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젊은 세대를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공공연히 반대했고, 그의 제자들 가운데는 반체제 인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네의 완벽한 패배로 끝난 뒤에도 지리하게 계속되던 델라의 전쟁은 변방의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한 알렉산더의 세계제국 건설로 비로소 끝났다. 전쟁의 효율성으로만 보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보다는 스파르타의 귀족주의가 나았고, 마케도니아의 전제군주주의는 그보다도 백배나 더 세었지만, 문화창조의 효율성으로 보면 굉가는 거꾸로가 된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아테네의 반체제 인사 크세노폰은 사람의 개인차로 보아서 민주주의는 실현할 수 없는 이상에 지나지 않으며,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하고, 왕은 인민의 주인이 아니라 머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테네 정치현실에 환멸을 느낀 그는 두 명의 왕을 정점으로 한 스파르타의 입헌군주주의가 더 나은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스물다섯 세기 전의 헬라보다 민주주의를 더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민주주의란 무엇보다도 법 앞의 평등인데, 이 원칙이 짓밟히는 곳에서는 향법상의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책 읽은 죄, 글 쓴 죄, 말한 죄밖에 없는 이들 양심수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부도덕한 교도의 대상으로 되기 마련이다.

권위주의는 나라 안팎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지만, 이삼월 늦추위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을 움추리게 한다. 오늘도 수많은 양심수가 공식적으로는 '보통의 범죄자'들이다. 강택민의 중국에서 그렇고, 김영삼의 한국에서 그렇다. 한국에서 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은 중세 유럽의 마녀사람을 방불케하는 반공 히스테리를 제도화하는 악법으로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연시키고 나라의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그 밖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지체하고 있다. 얼마 전 이 아무 의원의 명함 사건은 이 법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법이 없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해프닝이었다.

대통령 후보가 양심수 석방을 거론하다가 모진 북풍을 맞고 발언을 취소한 것은 참으로 개탄할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를 살리고, 국론을 통일하고, 나라의 체면을 세우고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보법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황종인
〈독일어과 교수〉

강경식, 강씨문중을 떠나라

-어느 강씨

백지 제자보

주제: 치솟는 환율, 기업연쇄도산 등 경제가 위급한 지금, 당신이 경제부총리라면…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한다

-빨갱이

우리 학교 경제학과를 제대로 만든다

-경제 97

나도 같이 쓰러진다.

-관절이 안좋은 경제부총리

대통령과 함께 자폭한다.

-걱렬 92

넘어뜨려버린다.

-L.M

일으켜 세우겠다.

-무서운 아이

꺼진 경제도 다시보자. 기필코 살린다. 그래도 안살아나면 이민간다. NK로

-빨갱이 2

믿을 수 있는 친구 —삼성

마라톤 기록 변화
그리스의 승전보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아테네 병사의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다

올림픽파트너- 애니콜PCS
애니콜PCS가 올림픽을 달립니다

"또 하나의 승전보"

"이겼다"라는 한마디를 위해 40여km를 쉬임없이 달려온 아테네 청년.
그 꿈을의 의지를 드높일 애니콜 대학생 리포터를 찾습니다.
무선통신부문 올림픽 파트너, 애니콜 PCS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승전보를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98 나가노 동계 올림픽
애니콜 대학생 리포터 모집

1.응모자격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고 일정수준의 영어나 일어 구사가 가능한 대학생)
2.선발인원: 10명
3.제출서류
-이력서 (사진부착,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및 호출기 번호, 교내외 활동사항 및 지즉 수상내역 기재)
-공인어학성적표사본 (TOEIC, TOEFL, JPT 중 1개)
자기소개서 (A4지 2매 분량, 자유형식)
4.접수기간및 접수처
1997.11.10(월)~11.29(토) (29일 소인 유효)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746호 나가노 애니콜 리포터
운영사무국 (110-607)
(방문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2-1
경포빌딩 4층 나가노 애니콜 리포터 운영 사무국)
☆ 문의전화: 02)512-5680,5860
5.선발자 발표
1997.12.26(금) 일간스포츠 및 개별통지

당신을 애니콜 PCS라디오 광고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친구사이, 연인사이, 가까운 사이-애니콜 PCS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은 그대로 라디오광고로 방송되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 전화: 080-001-4242 • 기간: 11/17▶12/10까지

작은 소리에 강하다- 애니콜PCS

SNOWLETS.
'98 나가노 동계 올림픽
무선 통신부문 공식파트너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

용인 총학생회 선거, 어떻게 치러졌나

공안탄압 등…낮은 투표율로 파장

컴퓨터 시스템도입등 진일보한 방법 시도

"총인원 6130명 중 3174명이 투표한 19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찬성 2495표를 얻은 고희철(인문·언어 4)·임정민(경상·무역 4)조가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채근수(서학·불어 4)군의 말을 끝으로 지난 달 27일(월)부터 시작된 19대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는 막을 내렸다.

지난 5월말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이후 김영삼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단대학생회장 2명이 구속되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들이 대부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이번 총학생회 선거의 중심은 '한총련 혁신, 취업등의 학내문제 해결' 등에 맞춰졌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한 강성희(인문·언어 4)군은 "한총련 혁신을 위한 우리의 진심어린 호소를 학우들이 믿어주고 우리에게 힘을 줄 때마다 기뻤다"며 "하지만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불신을 되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 선거도 단선으로 끝나 경선으로 막판까지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치며 선거문화를 한층 상승시켰던 서강학대 선거와 대조를 이루었다.

올해 학생회 선거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방식이다.

이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벌여왔던 선거방식과는 달리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투표 할 때마다 모든 건물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까지 정확히 나타났다.

그러나 투표 첫째날인 12일(화) 3초간의 정전으로 학생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시간대에 약 40분간 투표가 전면중단됐다.

또한 무효표가 많이 나온 이유 중 상담 부분이 선관위 측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 위원장 채근수군은 "중앙선관위원회 명의로 학우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이다"며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보여 학우들에게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 학교 재학생 1천명에게 선거와 관련된 E-MAIL을 보내는 등 다른 어느 해보다 새 다른 투표방식과 운동을 벌였음에도 투표율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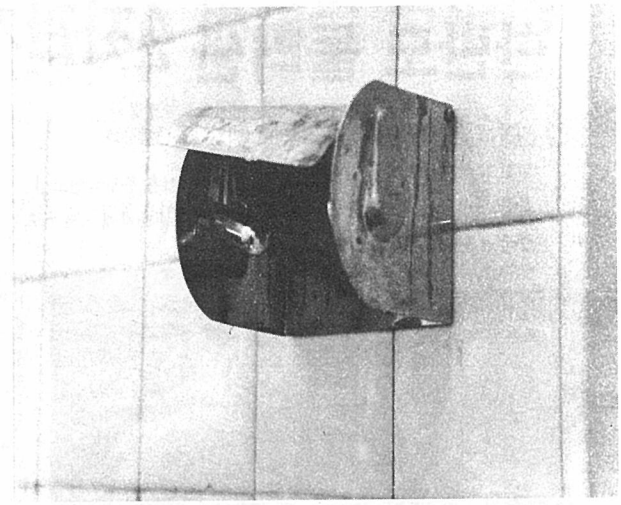
그 이유로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공안당국의 학생운동 탄압으로 인해 학생회장이 수배를 받거나 연행되어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이로 인해 계속되는 대학당국의 학생자치권 탄압에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등 2학기 학생회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학생회장은 수배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각 학생회장 후보 선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각 급 단위 학생회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선거가 끝났다. 두 당선자가 학생들에게 약속한 공약들, 이것은 단지 이 두 당선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학생들의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두 당선자를 지켜보는 데 끝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모든 행사의 주인으로 서야 할 것이다.

홍연화 기자



휴지도 없는 국책대 우리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종평 실사단이 온 하루동안만 걸려있던 휴지에도 학생들은 의아스러워했다. 학생용 화장실과 다르게 교수·직원용 화장실에는 항상 휴지가 배치되어있다.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학생복지, 진정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할 것이다.

임승희 기자

학생의 느낌에 기민한 학생회

기호 1번 노선호

1. 학생회에 몸담은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31대 총학생회에서 일하면서 대중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등 운동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활동을 더 넓은 공간에서 하고 싶다는 개인적 바램과 학생운동의 변화를 일구자는 관단에서 출마를 결정했다.

학생운동의 변화라 함은 전대협·한총련의 10년 역사를 이으면서도 한총련운동의 순환을 바꾼다는 것이다.

2. 많은 성과를 남기지 못한 활동을 펼쳤다. 학자투쟁 또한 많은 과제를 남겼다. 원인으로는 총학생회의 무능력과 단과대 학생회와의 의사소통부족으로 인해 대중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 같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었다.

3. 올해는 교육투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것은 △총학생회가 옳은 관점을 가지지 못한 점 △한총련이 정치적 이슈만 강조하는 분위기 △학생들의 개인주의 심화 등이 그 이유다.

남한사회가 총체적으로 보수화되고 학원마저 시장논리에 넘어가려는 이 상황에서 내년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바에 기민한 학생회가 되어 그 본질적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폭로전과 투쟁이 진행되야 할 것이다.

대학인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향후 한국대학 전체의 학자투쟁의 지향점이라 생각한다.

4. 기본적으로 한총련은 한국진보진영중에서도 가장 민중과 호흡하려 한 집단이었고 민주화의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대중과 호흡하지 못하는 정권타도·조국통일의 구호 등 그 한계가 지적된다.

또 한총련 중앙은 기층의 정치적 감수성을 상승시켜야 함에도 불구, 단일한 방침을 하달하는 형식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연합체운동을 제안한다. 정권의 탄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총련사수를 외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총련은 스스로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부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한총련은 대중조직이 아니다.

새로운 연합체 운동은 각 정파간의 동등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은 진행해야할 것이다.

5. 재단전입금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립학교가 이윤추구의 장이 되는 사립재단 운영에 대한 포괄적 문제제기와 아울러 시기별로 불거져나오는 문제를 고리로 전면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매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6. 총장선거는 올초 교수협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지만 권위적인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쳤었다. 이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학내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한 어려움중의 하나다.

총장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학생들의 개입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안병만총장의 '외대발전5개년계획'의 허상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선회, 우리가 원하는 민주총장과 외대의 모습에 대한 발언을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이후 어떤 총장이 다시 선출되더라도 우리의 발언이 걸림돌이 될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1. 올해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1학년 때 바라본 학생회는 느낌이 좋은 믿음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그저 답답함만을 주고 있다. 그것을 바꾸고 싶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성과를 이루고 싶다. 어려움을 피해가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2. 올해 외대학생회를 책임졌던 중앙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요구를 책임지지 못했던 모습을 반성한다. 정파의 이해를 중심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31대 총학생회는 외대인의 삶을 책임지는 자기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무수히 많은 제 입장들 가운데 총학의 주의·주장은 있을 지라도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없었다. 학관신축을 위한 움직임은 제대로 정리되지도 못한채 흐지부지됐고 소극장·식당문제 또한 많은 학생들의 서명이 있었음에도 진행상황조차 제대로 알려내지 못했다.

3. 올해의 경우 3월부터 진행된 학자투쟁이 1년간의 큰 목표를 잡지 못한채 진행됐다. 공간문제나 소극장문제 등은 대학당국측이 1년을 관통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온 문제들이다. 반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바라봤다. 따라서 대종평이나 교육개혁우수대학선정 등에 의한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환경·내용은 제자리다. 내년부터 교육개혁투쟁을 생존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곧 있을 교육개방앞에서 외대는 버티기 힘들다.

4. 그간의 과오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출범식 전까지 김영삼반대·대선자금공개·한보비리진상규명은 민중들의 현실적 요구였고 지향이었다. 그러나 학생회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그들의 입으로 자신의 요구를 말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참조적 방법을 고민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말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한다'는 당위로만 다가갔다. 한총련이 지향하는 자주·민주·통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그러므로 한총련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 시기에 새로운 연합체운동을 얘기한다는 것은 또다른 정파의 모임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비상대의원대회를 소집, 6기 한총련 건설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논의가 진행되도록 제기하겠다.

5. 재단투쟁은 외대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이다. 대 재단투쟁은 과반수 이상의 힘이 모일때 가능한 참여하고 어려운 싸움이다. 학생들의 의식을 높여가는 것은 단순히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황속에서 투쟁을 벌이고 그 작은 성과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의 경우 96년 민주납부투쟁의 성과가 무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승리의 감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대중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

6. 민주총장신출문제 또한 본질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역량이 준비됐을 때 힘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대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안병만총장의 '외대발전5개년 계획'을 되짚고 4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총장의 상에 대한 바램들을 모을 수 있도록 대중의 힘을 결집시킬 것이다.

지·상·유·세

지난 14일(금)부터 32대 총학생회선거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기호1번 측 정후보로 등록한 노선호(서양·영어3, 31대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군과 기호2번의 정후보인 오승훈(상경·경영4, 97년 상경대학생회장)군을 만나 학생운동·학자투쟁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1. 총학생회장 출마 동기
2. 31대 총학생회 평가
3. 외대 학원자주화 투쟁의 과제
4. 한총련에 대한 자신의 견해
5. 대 재단투쟁에 대한 계획
6. 올해 말 총장선거에 대한 입장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을"

기호 2번 오승훈

'98 학생회를 일구는 사람들

학생회 선거철이다. 학생회선거는 후보들의 풍부한 논의들을 학생들 속에서 검증받는 자리이다. 학생회의 어려움이 안팎으로 대두되는 지금,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편집자

친근하고 실천하는 벗… 우리모두의 과학생회

구은미(동양·중국어 2)

"출범식을 마친 후 학생회와 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함께면에 밀려와 감탄하기 벅찼죠" 과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20명이나 되는 1학년 후배들의 거침없는 질문공세에 단단히 고생했던 1학기를 떠올린다.

구양은 얼마전 대학 동아리와 두번째 과선거를 치르면서 다시한번 학생회와 한총련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다.

"학생회 선거를 치러 내려 느낄 수 있었고, 감동과 자괴감 모두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후배들이 내년 학생회를 이끌어가면서 경험하게 될 느낌들을 한발 앞서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흐뭇해 한다.

"거리감을 느끼는 학생회방, 학생회 임꾼의 모습을 떨쳐 버리고 친근함으로 같은 연배의 고민이 많은 친구, 실천하는 친구가 되고자 했죠"라며 이게 바로 과학생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는 말. '열린 소모임' '족구대회' '과 정보도서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얼굴을 맞대고 맘껏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되게끔 발을 새며 고민했다.

굄소 정치적 견해를 달리했던 후보에게 "올 학생회는 학우들과 호흡했던 생동하는 학생회"라는 뿌듯한 기억도 잊을 수 없다.

학연·지연·정파 아닌 정책에 관심을

김형주 (동양·이란어 2)

서울배움터에서 최초로 과회장에 당선된 이란어과 과회장 김형주군은 감기로 인한 피곤함에도 불구,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 시종일관 진지하게 대담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참여 망설였어요. 그러나 과집행부를 하면서 얻은 학생회의 소중함, 과를 바꿔보겠다는 마음이 저를 이끌었죠"라며 출마동기를 밝히며 말을 이어나갔다. "120명밖에 안되는 적은 인원이라 상대적으로 과 단합이 유리해요. 그런만큼 학생들이 바라는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조적인 사업을 펼칠 겁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입장에서 그는 이번 학생회 선거를 바라보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학생들의 자주적 요구를 누가 더 이끌어내고, 실현하는가가 당락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며 그럼에도 계파간의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며 정파를 떠난 '동료 안목'을 강조했다.

한총련에 대해서는 "과심을 주목시키려 한총련을 비방하는 분위기 조성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편가르기식이 아닌 기층 일꾼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한다.

"각 후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고 내년을 책임질 수 있을지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학연·지연·정파를 떠나 정책을 꼼꼼히 보고 선거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학우들의 질책과 비판은 혁신의 밑걸음

윤은미 (서학·독일어 4)

"매일 약 4시간 정도 잠을 자며, 학우들을 선거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11대 서양학대 학생회장 후보 기호1번 이정일 선거운동본부 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윤은미(서학·독일어 4)양.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질책과 비판으로 1시간 자는 잠도 편치 않았다고 한다.

"학우들을 만나면서 학우들이 학생회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절실히 느꼈어요"라며

"여태는 학생회가 잘못 돼왔다고 학우들이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윤양에게 학생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의 절실한 눈빛을 앞서 볼 수 있다. 윤양은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인지 선거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는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학생회를 향한 학우들의 말한마디 한마디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곱씹게 되는 자신을 이끌어주었던 채찍질이었다.

그런 학우들의 말과 눈빛을 먹으면서 살았던 선거기간은 윤양에게 또다른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단선으로 치루던 때보다 경선으로 치뤄져서인지 양 후보간의 정책대결을 펼치면서 학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양은 이런 조건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혁신지침 대해 많이 배우게 됐다고 한다.

윤양의 땀과 고민이 내년도 과학생회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혜답이 아닐까.

출마때의 성실함으로 1년을 나길…

김현기(자연·미생물 2)

"[illegible] 때의 성실함 주었음 [illegible]"

어서 그런지 공약이 와 닿지 않았어요. 그그럼 만들고 조용한 선거였던 것 같아요"

후생복지관 식당에서 만난 김현기(자연·미생물 2)군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다양한 들이다.

"후보가 직접 학우들에게 다가가서 공약도 설명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눈다면 훨씬 좋아질 선거가 됐을 겁니다"라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후보가 직접 돌아다닐 수 없다면 대자보 이용을 통해서라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김군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선거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덧붙여서 그는 학우들이 선거에 참여함을 보인 선거운동원의 모습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회의 존재성이 다시도 부여하기도 한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가 대중에도 신뢰를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펼치며 학내문제가 적절히 해결하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중 출마했을 때의 성실함과 성실함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 학우들과의 소통을 학생회가 될 수 있길 기대 합니다"라고 [illegible]에 대한 다짐과 [illegible] 마무리를 하였다.

한반도 둘러싼 4자관계 동상이몽

미국... 중국견제위해 북미관계개선, 미일안보동맹강화

남한... 북미관계개선 반대, 계속적 대북강경책

북한... 미국견제위해 북중관계유지, 미중갈등이용 통일국면조성

중국... 한중관계유지로 한반도 영향력확대, 북중관계 유지로 미국견제

<글 싣는 순서>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 지역분쟁억지정책과 대량파괴무기반확산정책의 본질
2.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내건 미국의 중국 정책
3.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남·북·미·중 4자 관계의 변주곡**

'고난의 행군'을 올해로 끝내겠다고 하는 북한은 지금 4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여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과 더불어 4자회담과는 별도로 미국에 대한 직접 협상의 폭을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4자회담에 대한 각국의 전략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인 4자회담을 제안하게 된 까닭은 물론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역제안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북한을 끌어당기려면 미국의 단독적인 힘을 동원하는것 보다 미·중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타산한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속셈은 효력을 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끌어들인 4자회담이라는 대안밖에는 다른 묘죽한 수가 없었을 테지만, 4자회담 구도에 들어간 중국은 북한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미국과 공조관계를 유지할 만큼 외교적으로 허술하지 않으며, 만일 4자회담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이 의견대립을 보일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립을 지키거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선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4자회담은 실제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판 외교대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식량난으로 견디기 힘든 붕괴위기에 몰려있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식량을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결국 4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았던 남한의 상황인식은 지난 시기 얼마동안 상당한 정파력을 가지고 확산되었는데, 그것은 너무 안이한 상황판단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의 식량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얻어내는데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북한사회 내부에 체질화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백두의 붉은 기 정신'을 앞세우고 '고난의 행군'으로 나아가면서 식량난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붕괴론'의 배경과 그 한계

엄밀히 말해서 '북한 붕괴설'을 가장 먼저 논의한 쪽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걸프전의 승리에 자만, 도취했던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게 김일성 주석의 급서와 수해 피해의 연속이라는 미증유의 시련이 몰아치자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도 별 수 없이 미국 앞에 무릎을 꿇던가 아니면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국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면서 제네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북한에 경수로가 세워질 때쯤이면 북한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며, 바로 그 예상을 담보로 남한에게 경수로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떠맡으라고 요구했다. 남한도 '북한 붕괴설'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이 성급한 예상과 행동은 미국과 남한의 외교적 실책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미국은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경수로 건설계획 심사라는 두 지렛대를 번갈아 들어올리면서 북한을 자기쪽으로 끌어당기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경수로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할 남한은 지금 구조적인 경제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경수로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남한의 경제난으로 경수로 건설계획이 어긋나게 되면 미국은 제네바 합의사항 가운데 절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약속위반자의 신세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네바 합의사항의 나머지 절반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들이댈 것이다. 여기서 나머지 절반이란 북·미 국교수립을 뜻한다.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외교경험은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정세를 읽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견고성을 너무 가볍게 평가했다는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붕괴설은 북한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객관적 조건에만 주목할 뿐, 그 객관적 조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체 역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파악하지 못한 채로 조급하게 성립된 가상논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겉과 속

다른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에서 이탈하여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중국에 대해서 겉으로는 비판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을 선택했던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세력에 대해서 '수정주의', '변절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왔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이른바 '주체의 사회주의 노선'을 옹호·고수하겠다고 되뇌어 왔다.

김정일 총비서가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러한 북한의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북한에 대해서 겉으로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벌어진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불안감을 가시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줄곧 식량을 지원하면서 후파를 던져 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벌어진다고 해도 결코 호혜관계의 전통을 버리고 갈등관계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북·중 호혜관계의 견고성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중국차단전략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차단막에는 결국 한반도라는 구멍이 생겨나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짧게는 북한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능력을 저지하여 핵확산금지조약체제의 붕괴를 막아보려는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길게는 북한을 전통적인 북·중 호혜관계에서 떼어내어 자기편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립화 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중국차단전략의 최종적 완결지역으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한과의 국교수립에 응하자, 남한은 한·중수교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곤경에 빠진 북한을 완전 포위하여 진공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먹혀들지 않았다.

중국은 남한의 북한포위전략에 동원될만큼 험험한 상대가 결코 아니었다. 중국은 한·중수교를 계기로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남한과 국교를 터놓음으로써 한반도 전체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대남관계에서는 경제적 이익만 얻어가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권안에 편입되어 독자외교의 폭이 제한되어 있던 남한의 외교적 지위와 역량은 중국과 같은 대국을 외교전략에 이용하기에는 너무 허약했다. 만일 남한이 미국에 대해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전략을 가동하여 북한을 포위·압박할 수도 있었을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아니했던 것이다.

북한을 둘러싼 미·중의 외교경쟁

전통적인 북·중 호혜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과 북미관계 개선으로 중국차단전략을 추구하려는 미국은 지금 북한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외교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물밑경쟁이 숨막히는 압투가 벌어질 지경으로 격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미중관계의 경쟁화 추세는 남한의 외교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그에 반비례하여 북한의 외교적 지위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와 중국의 한반도 외교경쟁 속으로 파고 들며 중소분쟁기에 몸에 익힌 특유의 자주외교전략을 가동하여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여 한미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질서를 뒤흔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북중이해관계의 일치는 앞으로 남한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미국이 중국 차단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대북관계 개선이 자신에게 안보위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들려왔던 한미관계의 마찰음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중심부는 한미안보동맹이 아니라 미일안보동맹과 중국 차단전략의 이중 접합공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한미안보동맹은 미일안보동맹의 하위체계로 기능해 왔으며, 한미안보동맹의 주목적은 북한에 대한 대결구도를 유지하는데 있었는데, 만일 미국과 북한의 대결구도가 일정하게 완화된다면 한미안보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미국이 미일안보동맹체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고 도리어 그것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미국은 대북관계 개선이 중국 차단전략에 더없이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단계에 이르면 한미동맹체제를 일정하게 위축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중국 차단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력이 더욱 증강되어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중관계가 더 심하게 갈등하면 할수록 미국은 중국차단전략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대북관계개선을 본격화하게 것이 분명한데, 바로 이러한 전망은 21세기 남한의 안보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1세기를 맞는 한반도의 과제

'고난의 행군'을 올해로 끝내겠다고 하는 북한은 지금 4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여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과 더불어 4자회담과는 별도로 미국에 대한 직접협상의 폭을 확장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대남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중국차단전략에 협력할 뜻은 전혀 없지만, 미중관계의 갈등국면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할 것이다.

지난 8월 4일에 발표된 김정일 총비서의 통일관련 논문에서도 나타나있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른바 '연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 창립'을 여전히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연방제식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동이 한반도의 21세기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통일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예상은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남한으로서는 미국의 중국차단전략을 반대, 저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에 대해 외교적 대응력이 없는 약소국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미·중갈등과 북·미관계 개선이 진행속도를 높이면 북한은 통미봉남 전략에 중국까지 끌어들이면서 남한을 압박해 올 것이다. 남한의 새로운 정권은 21세기에 밀어닥칠 이러한 도전적 상황을 뚫고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넘겨 받았다.

한 호 석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장〉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심부는 미·일 안보 동맹과 중국 차단 전략의 이중 접합 공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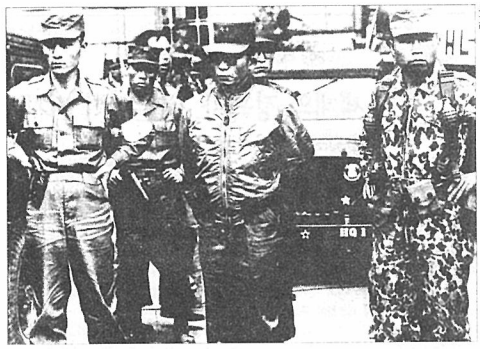
외대 학술상 문학상 공모

왜 당신이 어항에?

김세온 그림

외대학보에서는 14회 학술상, 34회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모집기간: 12월 12일(금)까지
모집부문: 문학상-시(3편이상), 소설, 수필, 희곡, 비평
학술상-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상 금: 당선작-50만원
가작- 30만원
유의사항: 작품은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문 의: 서울) 961-4152, 4466
용인) 0335-30-4112, 4580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박정희신드롬'이 일고 있다.

작년 하반기이래 도무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영남권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 일부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위기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하는 '박정희 신드롬'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5일 '박정희시대 재평가와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단체협의회의 학술토론회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강정구 동국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정해구, 정상호,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진보적이고 권위있는 학자들이 참여해 박정희 신드롬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여기에서 발표된 주요논문과 토론내용을 발췌,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① 박정희장권와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역사적 유산 – 정상호(고려대 정외과 박사과정)

② '박정희신드롬': 어상의 파괴와 우상의 신봉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에겐 '박정희'가 필요없다

시대는 '박정희' 요구하지 않았다

지역감정 · 기형적재벌 · 비자금등 부정부패 싹터

'유신잔당'을 '근대화세력'으로 격상시켜 놓은 근간의 박정희신드롬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세가지 논리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①박정희정권의 등장시점인 1960년대 당시의 조건이 민주화가 진전되기 어려웠고, 권위주의를 촉발하는데 유리한 환경이었다 ②분배이전에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산업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③박정희 시대에 이룩된 성공적인 산업화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나마 누리는 민주발전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로 그 당시의 민주화조건을 살펴보겠다. 뤼쉬마이어는 '초기' 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 국가권력의 공고화, 민주화에 저항하는 대지주의 부재, 산업화, 시민사회의 요구를 때개하는 정당의 발전이라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분단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반체제세력이 거세된 확정된 영토를 물려받은 박정희는 이승만에 비해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추진할 더 나은 여건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았던 당시의 토지소유를 재편하여 좌익의 근거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원동력이 되었던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 결과, 당시까지 지배계급이었던 대지주가 몰락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원조에 국가재정의 전부를 의지하였던 50년대의 상황에서는 경제적 측면(산업구조)에서의 변화는 정체되었다. 그러나 1955년 현재 도시인구비율은 전쟁전 18.3%에서 34.5%로, 매스미디어 역시 1946년 총 38만부에서 55년 198만부로, 문자해독률은 중진국 수준인 60%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1950년대에는 도시화, 교육수준, 메스커뮤니케이션 등 민주화를 향한 소프트웨어상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끝으로 4.19로 등단한 장면정권은 그 보수적인 성격과 고질적인 내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배블럭내에 경쟁을 촉발하고 사회통합의 동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초보적이나마 민주주의의 진전에 고무적인 사회적 조건들 역시 성장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산업화의 필요성에 의해 박정희정권의 여러 행적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 논리는 박정희시대의 부정할 수 없는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기본권 탄압조차도 성공적 산업화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으며, 후발국가간의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박정권등안에 산업화의 논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권유지와 재생산을 위하여 감행한 사건의 기록은 무수히 많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선거참여의 기회를 박탈한 3선개헌, 김대중납치사건, 제7광구 석유발굴 조작사건, 김영삼 신민당총재 의원제명 등은 성공적 산업화와 무관하게 민주화를 퇴보시킨 박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많은 기록 중 일부일 뿐이다.

셋째로, 박정권의 급격한 산업화 덕분에 오늘날의 민주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논리는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진정 한국에서 민주화의 가능성을 개척한 것은 가혹한 시장의 주기적인 공격과 국가의 일상화된 폭력에 아무런 안정장치없이 노출되어 있던 개발연대의 소외된 민중들이었다. 정치적 참여로부터 배제되고 경제적 분배로부터 소외된 민중과 권력획득의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당한 야당과의 저항연합이 구축되면서 유신의 붕괴조짐은 가시화되었던 것이다.

박정권의 산업화는 민중부문을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분배로부터 모두 배제시켰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부단한 저항과 압력은 박정권의 붕괴와 이후의 정치개방을 가져온 민주화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따로 있다. 유신체제의 형식과 정신을 고스란히 기업에 이전해 놓은 가부장적 재벌체제, 우리 사회에 파편화된 정당체제와 집단적 분열증을 안겨준 지역주의, 열불보다는 잿빛에 관심을 쏟는 비대한 정보기관, 주기적으로 국가경제를 뒤흔들어 놓는 천문학적 액수의 선거자금과 비자금 등은 그 시대가 남긴 유산이 아직까지 강인한 생명력과 증식능력을 지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윤숙 기자

양심수문제 긴급 토론회

'억압' 있는 한 '양심수'는 있다

지난 7일(금) '양심수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양심수 논쟁은 지난달 31일 김대중후보가 "우리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사면하겠다"라고 한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발언이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톱기사로 다루면서 논쟁을 부추기고, 신한국당도 "그동안 숨겨온 김총재의 사상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김총재에 대한 용공시비 공세에 나섰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양심수는 한명도 없다"고 밝히는 등 보수수구세력들은 현재 엄연히 구속, 수감되어 있는 859명의 양심수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내고, 지난 3일 보석으로 출소한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박원순변호사의 '양심수의 본질과 현황'이라는 발제문 발표와 각계민주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979년 9월 6일 제12차 국제위원회가 채택한 규약은 양심수를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 인종, 언어,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념'은 공산주의 등 좌익적 내용을 비롯한 어떠한 내용이라도 상관이 없다.

또한 '폭력'에 대한 부분에서, 설사 외형적인 폭력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일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과 법무당국은 문제의 수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양심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적법절차가 취해졌느냐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의 수인들에게 부과된 혐의는 대부분 '국가보안법'이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유명한 비정부기구(NGO)들이 국가보안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한겨레신문사 노조위원장 손석춘씨는 "조선일보를 선봉으로 한 언론수구세력들의 무차별 공세는 김대중 후보의 상당히 한계있고 제한적인 양심수에 대한 인식마저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법학과 한인섭 교수는 "정치체제의 합법성, 도덕성이 약할수록 시민적 저항권의 행사로서의 '폭력'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민중항쟁 때 폭도로 몰려 무기징역,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2년이 지나지 않아 사면한 사실이 있다"라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승리21의 정책위원장 최규엽씨는 "양심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 지배, 억압이 존속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의 폭력은 제도적 폭력에 지탱하는 정당방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엠네스티의 기준에 따르면 문제의 수인들은 거의 다가 양심수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전·노 사면반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 책

보수세력의 암호, '레드'

세계에서 들쭤가리면 서러워할 정도로 온 국민이 반공정신으로 무장되어있는 우리사회에는 소위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가 만연해 있다. '레드 콤플렉스'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하여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레드 콤플렉스 광기가 남긴 아홉개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 광기 조장의 선봉에 서 있는 인물과 그것의 희생양이 되어온 인물 총 9명에 대한 비평 모음집이다.

광적으로 '레드 콤플렉스'에 집착하고 이를 부추기는 주범은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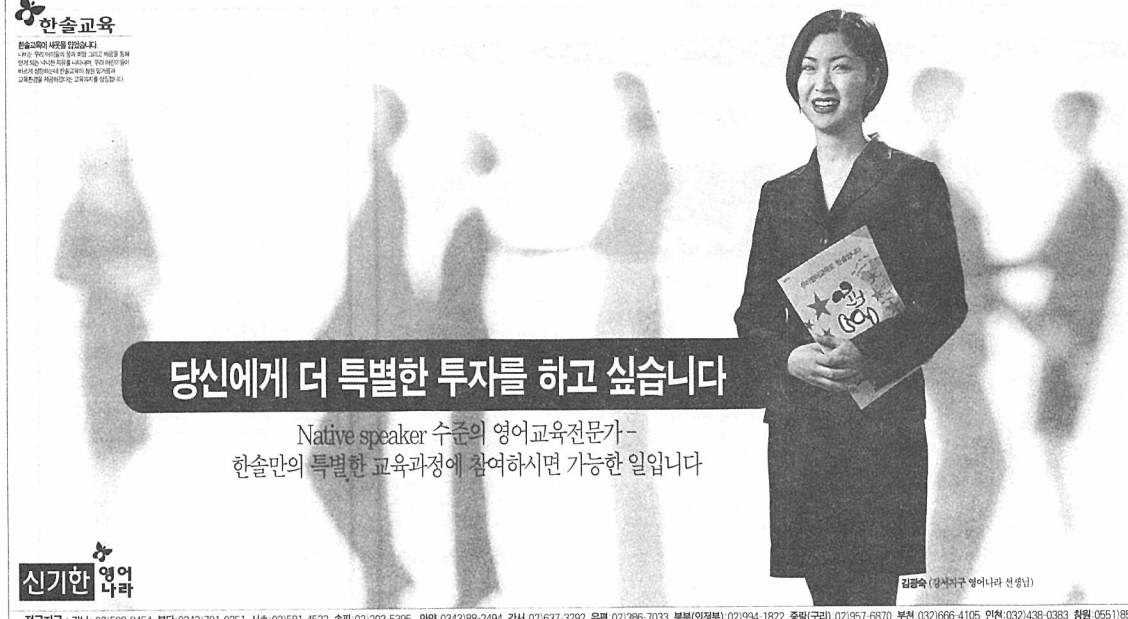
'대일본 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나 민족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는데 '기여'한 이들 언론은 해방정국에서부터 명백한 친일행적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반공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친일이라는 어두운 과거에 깊숙히 뿌리를 박은 이들 언론의 '레드 콤플렉스'는 그 후 친일파 후손들이 자자손손 세습하면서 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인물평론으로서 이 책은 '레드 콤플렉스'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주사파 발언'으로 유명해진 전 서강대 박홍총장을 비롯해 보수적인 태도로 유독 진보주의자들에게만 독설을 퍼붓는 작가 이문열 등을 든다. 이와 함께 좌우의 균형을 잡기위해 외롭게 투쟁하면서 엄청난 수난을 겪은 리영희, 용공시비에 휘말린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8일간 북한 여행을 한 죄값으로 17년간 자유를 박탈당하고 최근 또다시 영화 '레드 헌트' 상영으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등 '레드 콤플렉스'에 대항하며 살아온 인물들을 이 책은 심도있게 분석해 내고 있다. 9명이라는 대표적 인물에 대한 제한적 평론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레드 콤플렉스'의 실체에 접근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 책의 시도는 상당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솔교육

한솔교육이 새로운 입장습니다.

나라는 우리 아이들의 참의 희망, 그리고 배움을 통해 인재 되는 내년된 자리를 나타내며 우리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한솔교육이 동반 일기를 고목한일을 해결하겠다는 교육이념을 성취합니다.



김광숙 (강서지구 영어나라 선생님)

한솔교육만의 조기 영어교육전문가 교육과정

1. 국내연수 3주과정 : 다양한 Teaching method를 통해 현장 적응력을 키워줍니다.
2. Hansol ELS, ECE 프로그램 : 영어실력을 한 단계 더 탄탄하게 해 줍니다.
3. 캐나다 현지연수 : 현지 자체 연수원에서 Fild trip 중심의 새로운 이문화 경험기회를 제공합니다.
4. 보수 교육 과정 : Native Speaker가 발음 및 회화를 보다 정확히 지도해 드립니다.
5. Event 양성 과정 : 교육에 관한 Event 의 기획 및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사내강사 육성 과정 : 전문교육의 강의력을 키워줍니다.

캐나다연수의 기회가 있는 신기한 영어나라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근무지역	특 전
신기한 영어나라 선생님 (TOCO TUTOR)	남 여 000명	• 만 33세 이하 • 4년제 대졸 이상 남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전국	• 캐나다 연수교육 • 외국인 전기교육 • 빠른 승진 제계 • 결혼 후 근무가능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우측상단에 연락처 및 희망소속이름 기재)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기소개서
■제출기간 : 1997년 11월중 모집합니다.
■제출장법 : 광고 하단 지국(지점)지구장는 해당지국(지점)에 방문접수 또는 본사 우편접수(마라톤역 지국장는 본사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우편번호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250-4 근신빌딩 신관 3층 (주)한솔교육 인사담당자 앞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한솔교육

(주)한솔미디어 · (주)한솔미디어 개나다 · 한솔출판(주) · (주)한글나라 · (주)한솔인터내셔널

문의전화 (02)718-0031

전국지국 : 강남 02)598-8454 분당 0342)781-0251 서초 02)581-4522 송파 02)203-5395 안양 0343)88-2494 강서 02)637-3292 은평 02)386-7033 북부(의정부) 02)994-1822 중랑(구리) 02)957-6870 부천 032)666-4105 인천 032)438-0383 창원 0551)85-3963 전주 0652)87-0261 울산 0522)96-0773
전국지점 : 부산 남구.동구 051)624-1488 영도 051)465-9621~3 연제.수영 051)864-5558 진주 051)818-0550 북구 051)338-8001 사상.주례 051)312-0300 사하 051)205-5556 동래 051)552-5252 금정 051)583-5900 해운대 051)731-0500 ■대전 서구 042)222-5005 동부 042)624-3434 중앙 042)221-0877 유성 042)822-3472~3 ■광주 북구 062)269-0508 서구 062)369-0505 남동 062)225-0502 광산 062)972-0505 ■대구 달서 053)654-6666 북구 053)324-3833 ■경기 일산 동 0344)906-0501 일산 서 0344)918-2002 수원권선 0331)45-6096 수원장안 0331)41-0582 수원팔달 0331)42-9800 안산 동 0345)83-0509 안산 서 0345)413-0500 용인 0331)285-4411 평택 0333)658-3400 ■경상 마산 0551)99-9955 진주 (691)748-0922~3 경산 053)816-1404 경주 0561)775-8161 구미 서 0546)52-9451 ■전라 순천 0661)723-0509 여수 0662)685-0503 ■충청 천안 0417)568-4932 청주 흥덕 0431)276-6007~8 청주 상당 0431)52-0188 ■제주 064)52-1705

스포츠, 마냥 열광할 수 없는 이유

그라운드 영웅이 사회의 영웅은 아니다

스포츠 정신 부재 속에 자본만 남아

글실는 순서

1. 여느글 -
스포츠, 마냥 열광할 수 없는 이유
2. 정치가 스포츠에 굴복하다
3. 자본이 스포츠를 움직인다
4. 스포츠, TV로 영웅되다

정복할 것인가 정복 당할 것인가.

한국경제가 침체돼 있는 틈을 비집고 국내시장에 침투해오는 외국기업에 맞서 한 스포츠용품 업체가 내놓은 광고 문구다. 신자유주의 열풍을 타고 '경쟁'의 태풍이 휘몰아친다. 거기에 스포츠 열풍이 합세했다. 가히 그 위력은 전세계를 휘젓고도 남는다.

스포츠 열풍이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 열풍은 필연적으로 '경쟁'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스포츠예선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 1등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언론의 영웅화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멋진 연예인만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스포츠 영웅시대다. 최진실이나 한석규보다 박찬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중의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일찌감치 국내 CF 사상 최고액인 8억원을 기꺼이 박찬호에게 지불했다. 그리고 박찬호는 광고주인 한 컴퓨터회사에게 PC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고 20%성장이라는 결과로 보답했다.

스포츠 신문도 박찬호가 1면에 등장하는 날은 판매고가 적어도 30%이상 증가되고, 메이저리그도 박찬호가 등판하는 경기에는 광균 14.4%의 관중이 늘어난다. 박찬호와 관련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적게 잡아도 1천2백억원에 이른다. 과연 '박찬호 주식회사'라 불리는데 손색이 없다.

축구와 자본의 관계는 야구보다 훨씬 오랜 전통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94년 미국 월드컵은 예선전까지 포함해 1년동안 무려 3백20억명이 경기를 시청했다.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가 스포츠로 벌어들인 총수입은 자그마치 8백85억달러가 넘었다. 20세기 말에는 1천6백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회사들이 스포츠 하나에만 쏟아붓는 광고비가 1백38억 달러, 세계 스포츠 광고비는 4천3백억 달러에 이른다. 돈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제 스포츠에는 스포츠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포츠 상품속에 가려 하무적뿐 뿐이다. 상품성 있는 스포츠만이 인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텔레비전 중계가 어려운 경기는 사양화되고 용이한 경기는 활성화된다. 광고가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바로 '돈'이고 스포츠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화평론가 김창남(성공회대 교수)씨는 "불거리가 많은 종목은 인기를 얻고 불거리가 적은 종목은 주변으로 밀려난다. 리듬체조나 수중발레 같은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여 인기를 얻는 것도 텔레비전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전파방송의 영향력을 지적한다.

'박찬호, 선동렬은 독립군인가.' '치빔근 대통령, 박찬호 국무총리, 선동렬 외무부 장관'이라는 말은 그냥 웃어 넘길 것인가. 언론이 선봉에서 지휘하고 있는 위 정부체계는 결코 공상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 전파를 더 많이 타고 있는 이들의 영향력은 정권말기의 김영삼대통령과 비교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져가더라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영웅이 아니라 단지 그라운드의 영웅일 뿐이다. 하지만 그처럼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왜 한국사람들은 다저스의 박찬호를 코리아의 박찬호라고 하는가"

이제는 그 물음에 대답할 차례다. 언제까지 스포츠에 마냥 빠져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너비아니는 '불고기'의 옛말입니다

너비아니 118

<5> 이탈리아의 식습관과 음식문화2

세계의 정복자, 이탈리아 피자

"피자를 먹을 때마다 나는 세계를 먹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자리에서 피자 두판을 먹어 치우지만, 나의 할아버지는 한자리에서 네 판을 거뜬이 먹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를 겁니다." 이탈리아 유학시절 한 피자식당에서 자신을 공산당원으로 소개하면서 로마제국과 무솔리니를 그리워한다는 한 촌노인의 말이다. 앞다시피, 피자는 그 모양이 지구처럼 둥글고 색상은 무지개처럼 화려하며 구성은 국가들의 모자이크를 연상시킨다. 마치 이상적인 유럽통합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래 이탈리아피자의 밑가루반죽은 얇어서 화덕에 구을 경우 바삭바삭하며 그 위에는 기본적으로 적당량의 토마토소스와 치즈, 그리고 종류에 따라 올리브(또는 돼지기름), 마늘, 가지, 잘인 멸치, 햄, 양송이 등과 같은 수많은 재료들이 요리사의 상상력에 따라 첨가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특정한 이름의 피자가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식당에서 주문할 때에는 그저 '무엇 무엇이 첨가된 피자'라는 식으로 그 종류를 지적한다. 도시의 거리상점에서는 갓 구어낸 조각피자들이 행인의 입맛을 자극하며, 심지어는 프랑스의 바케트빵에 갖가지 재료를 첨가한 바케트피자와 감자가 첨가된 두툼한 감자피자가 이탈리아의 남부에서 전통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역사적(19세기)으로 피자는 이탈리아의 애국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폴리 부르봉왕가의 마리아 카롤리나(Maria Carolina)왕비가 이탈리아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붉은색 그리고 녹색의 모짜렐라치즈, 토마토소스 그리고 바실리코를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 크게 환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탈리아인들 사이에 자주 거론된다.

본래 피자는 서민들의 주위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음식이었다. 남부의 어둡고 불행한 삶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짓눌려 온 이탈리아인들의 정신적인 고독과 허약한 육신을 지켜온 파수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색다른 맛을 추구하는 지배계층들에게도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서 근대 이탈리아 역사에 있어서 서민과 왕족의 문화적인 연결통로로 이용된 것도 바로 피자였다. 나는 종종 조카들과 피자를 먹는다. 그때마다 조각을 잘라 입속에 넣으면서 이 부분은 과연 지구의 어느 지역일까 ?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는 내 입속에 있는 피자조각의 맛과 같을가를 생각하곤 한다.

김 정 하
〈사학과 강사〉

찬성한다 !

우리가 살아가는 이방은 그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죽는 끝없는 세월속에서 수많은 문화와 삶의 방식을 남기었습니다. 그 문화의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후대의 사람들은 혹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인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듯 문화도 태어나고 죽는 일은 반복하며 앞으로도 계속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아우르는 큰 정신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힘을 모아 어떤 일을 해내는' 작은 것부터 마음과 생각, 사상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장승은 '숭배'가 아니라 '일상'이다

지난 10월 30일에 치뤄진 장승제는 대학내의 일상에서 민족의 문화란 멀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늘 같이 숨쉬는 것이란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장승은 친근한 벗이기도 하고 때론 전염병이나 외세의 수탈과 같은 두려운 대상에 대한 심정적 기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관념이 되어 장승을 모시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한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행사 바로 전날부터 생긴 기독교 연합과의 마찰은 장승이 서 있는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연합측에서는 장승제를 상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학내에 그 어느 학생 자치행사도 그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진행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대학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문화라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혜와 사랑도 필요합니다. 파놓은 구덩이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채 독단적인 생각으로 다시 메꾸어 버린 모습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뽑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의 문화도, 종교의 사랑도 아닙니다. 중세시기 마녀사냥을 하던 모습처럼 하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종교의 폭력입니다.

200여명의 왕산인들이 나무를 베어오고, 다듬고, 조각하여 장승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땀과 정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넓은 대학인, 그리고 종교인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박 지 선
〈장승제 준비위원회 위원장 서학·서반아 4〉

장 승

지난 30일(목)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앞에서는 '고인을 트기 장승제'를 들러싸고 장승제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측과 기독교연합동아리(기독교동아리) 간의 마찰이 발생했다. 전날 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측이 파놓은 구덩이를 기독교 동아리가 사전논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메워버렸다. 다행히 중재위원회(위원장 채근수)의 '일단 행사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내에 장승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자'는 제안을 기독교 동아리에서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아직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기독교 동아리가 '장승을 뽑아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준비위원회측과 기독교동아리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이와 함께 장승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만나 '장승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7면에 계속

편집자

반대한다 !

특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성이 서양문물에 젖어 있다면 독특한 물건에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뛰어난 문화유산을 만들어냈던 창조성과 순박했던 서민들의 소박성에 두고자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어지러운 현실속에서 이러한 정신은 어디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무 몇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이면에 있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혼탁한 세상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감각해진 우리에게 인생을 일관되게 연결시켜 줄 것이 있을까요? 당신의 잠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바로 내일 일을 내다 볼 수있겠습니까? 가장 왕성하고 활기에 차있어야할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과 푯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라져 변하는 것이 아닌 어제, 오늘, 내일을 이어가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외대이념에 나타난 진리, 평화, 창조를 어떠한 형식으로 얽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승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안에 있는 우상을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제이고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선택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장승은 '우상'이다

김 일 구
〈CAM 회장〉

생활 시평

껍데기는 가라

요즘 각 과에서 졸업을 앞두고 사은회가 치러지고 있다. 사은회는 졸업생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베푸는 모임이다. 이 뜻대로라면 사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간의 교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맞는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돌이켜 보기도 하면서 즐거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은회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다.

졸업생들은 행사 마련을 위한 몇만원의 회비를 내기조차 꺼리고 회비를 냈다해도 취업 준비에 바빠 행사 당일날 불참해 버리기도 한다. 교수들은 사은회가 어디에서 치러지는지, 졸업생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지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 각 과마다 사은회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다 보니 서로 장소와 선물내용이 비교되고 이런 비교가 그 과의 체면이나 위상 차원의 문제가 돼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라며 사은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교수들은 준비미흡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사은회를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있다. 물론 모든 학생과 교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즈음 사제지간에서 예전같은 인간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존경하는 교수가 거의 없고 교수들에게는 4년동안 얼굴 한 번 가까이서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있다. '대학'하면 떠오르는 사제지간의 열띤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공보다 토익을 공부하고 오로지 간판을 위해 학위를 따는 등 취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의 모습만 휑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다. 곧 많은 학생들이 교정을 떠나 졸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학내의 진정한 사제지간이란 무엇일까라는 화두가 던지는 시점이다.

허윤숙 기자

생협 보여주기

생협의 조합원과 직원

생협은 조합원 자신의 것이고 조합원이 주인공입니다. 바라서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요구를 잘 살펴서 그 요구를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협입니다. 따라서 못지내인 생협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조합원 생협은 생협의 모든 일을 조합원 전원이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조합원 가운데 대표가 선출되고 신출된 임원이 매일 매일의 생협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과 임원의 분리된 생협입니다.

조합원이 다섯 늘어나 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일상적인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생협의 일상적인 업무에만 전념하는 직원이 필요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대표인 임원이 직접 고용하여 업무조직이 마련됩니다. 조합원, 임원과 직원이 분리되는 생협이죠. 이렇게 해서 공동의 목표를 지니면서도 조합과 임원이 다른 조합원 조직과 직원의 업무조직에 의해 생협의 전체 조직이 마련됩니다.

문화 옹달샘

새 책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 강?

안재구 지음

시계절 출판사 / 9,000원

이 책은 1994년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 복역중인 옥중의 지자가 딸에게 보내온 수십통의 편지들을 엮은 것이다. 한 지식인의 출생부터 소년기까지를 소탈하고 진솔하게 기술한 자서전형식으로 쓰여진 소설로 함난한 식민지 시대와 분단된 조국을 헤쳐온 한 가족사를 통해 민족이라는 큰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과 굳건한 민족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지자의 아름다운 고향산천인 말양에 얽힌 전설과 어린날의 추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김열규 지음

오늘의 책 / 각권 5,000원

'욕'은 글래벗은 말이 아니다. '욕'은 염치 갖추고 경위 바르다. 또 뒨버락, 칭천 하늘의 마른 벼락이 되어서 사람들 간담 한복판 또는 정수리를 후려치기도 하고 의리며 이치를 일깨우는 속담처럼 세상스승 노릇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욕의 본질은 육이라는 자체의 거부감으로 넘리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 책은 '욕'의 거부감을 없애고 '욕'도 하나의 문화로서 보자는 지자의 의도로 나왔다. 욕의 성쁨, 욕의 대상, 욕의 전략과 전술의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부록으로 '이럴땐 이런 욕이 백발백중이다'와 '고전에서 뽑은 욕 모음'이 있어 한층 불거리를 풍부하게 해 준다.

이주의 영화

퍼니 게임

감독 : 미카엘 하네케
주연: 수잔네 로타헬

이 영화는 관객과 영화라는 게임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즉 영화를 이끌어나가는 동기인 것이다. 두 악동 폴과 피터는 계란 4개를 빌리기 위해 게오르그씨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게오르그씨와 가족들은 두 악동의 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감독은 인간은 폭력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비판하면서 영화라는 매체의 게임을 비판한다. 음악조차 감독의 의도에 맞게 관객의 감정의 동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도록이면 사용을 피했것처럼 이 영화의 소품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연출되었다.

공 연

1회 서울여성영화제 다시 보기 프로그램

지난 4월에 열린 1회 서울여성영화제 기간중 인기를 모았던 작품 11편과 더불어 2편의 신작영화를 오는 14(금)부터 18일(화)까지 극장 '마녀'(구 참두포스트)에서 추가 상영한다.

각 단체와 대학의 추가 상영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번 재상영은 1999년에 있을 2회 서울여성영화제까지 이어간다는 취지로 열린다.

선보이는 작품은 '낮은 목소리2' '두 친구' '나는 앤디워홀을 쐈다' 등이다.

특히 이번 재상영에서는 요일별로 관객과의 종합 토론이 마련되어 오는 17일(월)에는 '낮은 목소리2'의 변영주 감독과의 자리가 18일(화)에는 여성영화제 집행위원인 이혜경씨와의 토론이 진행된다.

문의) 324-6008, 324-6758. 관람료) 5,000원

이달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17일)	소고기 모듬야채달밤 (₩1,500)	사골우거지 국밥 (₩1,200)	잡채밥 (₩1,300)
화(18일)	돈육볶음덮밥 (₩1,400)	닭개장 (₩1,400)	부대찌게 (₩1,400)
수(19일)	해물잡탕밥 (₩1,400)	김치팔리프 (₩1,200)	소고기떡볶음덮밥 (₩1,500)
목(20일)	소고기 국밥 (₩1,500)	돈까스 (₩1,500)	하이라이스 (₩1,200)
금(21일)	콩나물 국밥 (₩1,400)	불고기 덮밥 (₩1,400)	돈육김치찌게 (₩1,400)

* 위 식단은 물품수급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왕산(어문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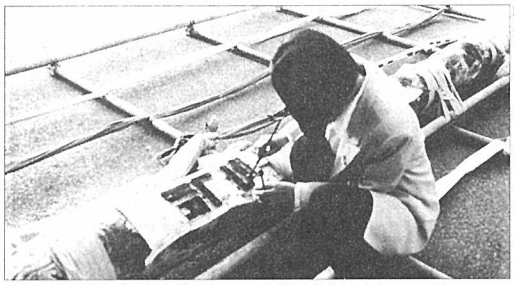
구분 / 요일	조 식	중식 II	석식
월(29일)	부대찌게 (₩1,300)	새우커틀렛 (₩2,000)	쇠갈비우거지탕 (₩1,500)
화(18일)	오징어덮밥 (₩1,300)	전주식 비빔밥 (₩1,800)	사리곰탕 (₩1,500)
수(19일)	해시라이스 (₩1,300)	소시지베이컨구이 (₩1,800)	닭육개장 (₩1,500)
목(20일)	김치해물덮밥 (₩1,300)	후라이드 치킨 정식 (₩2,000)	소머리국밥 (₩1,500)
금(21일)	돈육고추잡찌게 (₩1,300)	완산정식(수제) (₩2,000)	콩양식 어복쟁반 (₩1,500)

〈제공: 총무처 후생과·생협협동조합〉

장승의 현대적 의미

장승의 차림새는 민중의 얼굴이다

마을 공동체의 풍요, 다산, 안녕을 담당한 공동수호신



사진은 지난 30일(목)에 열린 '고인물 트기 장승제'를 준비하는 학생의 모습이다

19세기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들은 '뫼장'을 먹는 조선인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썩혀서 먹느냐. 음식을 썩혀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건 야만인이다'는 식으로 고단백 발효식품인 뫼장을 멸시했다고 한다. 생활풍습이나 문화현상을 바라볼 때 외형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현상의 내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결과라 하겠다. 거기다 한국 것이라면 덮어놓고 미신이니 비과학적이니 하는 말로 평가절하 했던 서양인들의 '한국문화 비하의식'이 담겨있는 일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비하하고 있는 듯 하다. 초·중등 교육용 사회과 교과서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활방식으로 짐장이와 무당을 찾아다니는 일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오늘날의 성황당, 산신제, 풍어제를 원시신앙의 여러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결국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샤머니즘(우상숭배)을 중심으로한 민간신앙이 미신이나 원시신앙의 측면에서 설명되었을 뿐, 그것이 지니는 내재적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지나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장승'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장승은 본래 마을 공동체의 풍요, 다산, 풍농, 마을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신성지역, 마을입구의 경계표시, 방위와 사찰 입구에 세워 사찰을 수호하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거기다 형상이 남근형이어서 성신의 변체(變體)로 참조, 생식, 종작의 의미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로 여겨졌다.

장승을 만드는 재료로는 돌과 나무가 주종이다. 목장승은 중부지역에 많고 석장승은 영호남과 제주도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점도 일률적이지는 않다. 장승은 하위신이다. 물론 이점도 전국적으로 일반적이지는 않다.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신앙의 주신으로 모셔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장승에 쓰인 문구는 대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동방축귀대장군, 서방축귀대장군, 토지대장군, 방어대장군 등이나 그 주종은 역시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대장군과 지하를 다스리는 지하여장군이다. 대개 공통적으로 '장군'이나 '대장'이 붙어 있음은 이들 용맹한 무장적 수호신이 마을을 지켜주리라는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장승의 수호신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장승은 민중의 세계관을 담은 민중조각품으로서도 높은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 '우리문화의 수수께끼'의 저자 주강현(민속학 박사, 한국역사민속학회)씨는 "험악한 얼굴로 마을을 지켜주던 그 모습은 차라리 친근하고 우스꽝스런 얼굴이다.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는 모습에서 웬지 웃음기가 배어나오고, 시집장가 가는 총각처녀 장승의 옷차림새로 예쁘게 서 있는 장승에서 오히려 험상궂은 위압감이 나오기도 한다. 그 모양새도 우락부락한 거인에서부터 비쩍 마른 놈, 오동통하다 못해 비만증에 걸린 듯 풍만한 몸집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바로 이들 장승의 차림새는 우리 민중의 얼굴 그 자체이다"고 설명한다.

한편 8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장승은 '솟구쳐 오르는 민중의 힘'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북아메리카의 토템폴만큼이나 거대한 장승으로 만들어지고, 일부의 장승은 분노가 담긴 듯한 '눈'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찢어질 듯한 '입', 분을 삭이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쉴 듯한 '코'를 가진 80년대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장승으로 발전해간다. 장승의 현대적 변용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필영 교수(한남대 역사교육과)는 "장승을 '미신과 우상숭배'로 치부하는 극히 일부의 기독교도의 시각도 문제이지만, 장승을 사회변혁운동의 차원에서 '솟구쳐 오르는 민중의 힘'으로 막연하게 미화하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민주화'나 '통일'의 염원을 장승을 통해 표명하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제기다. '통일대장군' '해방여장군'의 기문을 세기고 있는 우리학교의 장승 역시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 시대에 맞게 변용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학에서 장승을 '민중의 힘' '통일의 열망'으로 표현한 것은 어찌보면 장승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겠다.

민간신앙을 비롯한 전통문화는 이제 계승과 혁신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 재생산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민중을 중심으로,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화의 현재적 변용이다. 현재적 변용 없이는 구시대 유물로 취급되고 결국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퇴물이 되고 만다. 장승 역시 마찬가지다.

"'장승의 현대적 의미'라는 논제의 껍근은 장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전통사회, 전통문화 모든 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화사대주의, 문화제국주의, 문화적인 혼돈에서 빚어진 문화를 보는 삐틀어진 인식의 '시정'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종철(민속학자)씨의 지적은 장승과 관련한 여러 잡음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인 듯 하다.

문화부

문화 단신

서 울

이번주 베트남어과 30주년 기념예술제 개최 지난 주 독일어과 예술제 열려

오는 17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베트남어과가 '30주년 기념 예술제'를 개최한다. 과창립 30주년을 맞아 과구성원과 동문선배가 함께 베트남어과의 새로운 도약을 하자는 의미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행진사 댁 경사'를 공연하는 원어연극·베트남 민속춤 공연·영화제·원어노래·시화전, 사진전·풍물공연등이 마련되며 마지막 날인 22일(금)에는 학술제와 동문인 체육대회, 동문인이 밤이 펼쳐진다. 원어연극을 준비한 정영석(2)군은 "이번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과 구성원이 한 가족처럼 단결할 수 있었다"면서 예술제 준비의 성과점에 대해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3일간 원어노래패 공연·독일전통 결혼식·민속춤·전통음식 판매·단편영화상영등과 학술제, 체육대회가 선보인 두번째 독일어과 예술제가 열렸다.

'컴퓨던트' 프로그램 전시회 오는 17일(월)부터 열려

컴퓨터 연구회 '컴퓨던트'가 오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간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 한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외계인과의 근접조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UFO와 외계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선보인다. 선보이는 작품으로는 'ET'에서 'MEN IN BLACK'까지 외계인과 관련된 영화모음 프로그램과 각 당 대선주자를 외계인으로 형상화한 외계인 모의대선 프로그램등이 특별히 관심을 끈다.

회장인 김병우(상경·경영2)군은 "도서관에 컴퓨터 관련서적이 부족하여 자료구하기가 힘들었다"며 도서관 보유 장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범대 풍물패 '대종평' 주제로 오는 21일(금) 공연 예정

사범대 풍물패 '한솔밥'이 오는 21일(금) 대학원 6104에서 '대종평'을 주제로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에서는 요즘 외대에서 가장 관심이 되어온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해 '한솔밥'의 평가 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찾아나가자는 주장을 설장고, 풍물창작곡, 북춤, 창작판 굿등으로 담아낸다.

패장 조혜미(사범·영교2)양은 "작품의 창작이 힘들었지만 풍물을 학생들과 좀 더 친근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했다"며 바램을 밝혔다.

'반란'을 주제로 정치영화제 열릴 예정

오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간 정외과 주최의 정치영화제가 대강당에서 열린다. '반란'을 주제로 60년대 미국의 반전운동을 주도했던 세대의 후일담을 통해 미국의 이면사를 다룬 '허공에의 질주'(감독:시드니 루멧, 1998), 이탈리아의 계급갈등을 그린 '1900년'(감독: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1976)등의 영화를 상영한다. 특히 19일(수)에는 '빌어먹을 휘틀'을 만든 환철민감독이 초청되어 그가 추천한 영화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을 상영하고 이후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율동패 '신새벽' 거점문화제 개최

율동패 '신새벽'이 지난 7일(금) 붉은광장에서 거점문화제를 개최했다. '신새벽이 추천하는 율동'을 주제로 '청년진군가', '동지가', '복수가', '평양아가씨'의 기존에 있던 율동과 이번 공연을 위해 신새벽이 직접 창작한 율동 '밀어붙여'를 선보였다. 패장인 박애준(동양·태국어3)양은 "1학기 때 신새벽이 율동패답지 못했다"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1학기를 반성하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대중조직으로 나가겠다"라고 앞으로 신새벽의 운영에 대해 밝혔다.

봉사동아리 - 손말사랑회

외 대인이 외 대인에게

손끝에서 손끝으로 정을 나눈다

"내년에는 공동체위원회를통한 한 학내 수화기초반을 활성화시켜 수화를 꼭 배우고 싶은 왕산인에게 꼭 필요한 동아리가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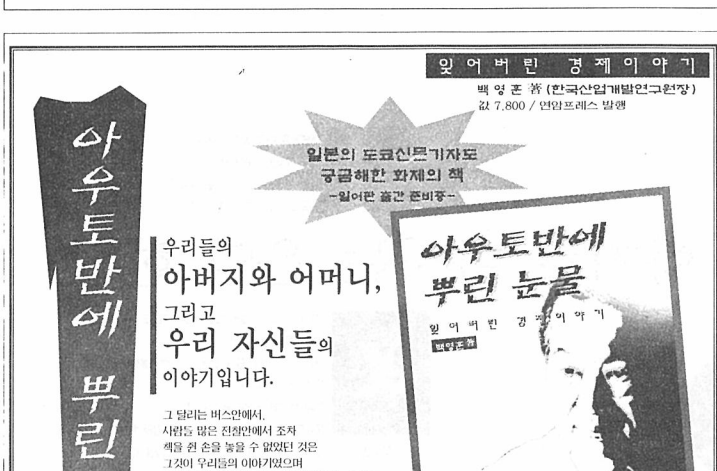
사진은 손말사랑회회원의 모습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왕산 손말사랑회는 작게는 학우들에 대한 수화보급 및 지원활동을 크게는 모든 장애우에 대한 일반인(여기서는 일반인을 장애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일반인임)들의 인식 전환과 장애우들의 인권확보 및 복지실현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왕산인들이 모여 1988년 10월 27일에 창단된 동아리이다.

현재 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 수화교실 운영, 재활원 방문, 수화발표제,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이틀 찻집 등 학내적으로 많은 활동과 더불어 학외적으로 수화동아리 대학연합회에 소속되어 국민대, 경기대, 경찰대, 성결대, 한양대, 이대와 함께 찻집, 가두홍보제, 세미나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학생회관 318호 손말사랑회에 대해 대략적인 소개는 위에 있는 바와 같다. 내년에는 총학생회장의 공약에서 보았듯이 공동체 위원회를 통한 학내 수화기초반을 활성화시켜 수화를 꼭 배우고 싶은 왕산인에게 꼭 필요한 동아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손말인은 수화를 통한 선후배간의 정을 더욱 중시하는 동아리임에는 틀림없은 것이다. 얼마전 89학번 선배님 결혼식에 97학번 새내기가 '사랑의 서약' 수화공연을 할 정도로 약 10년간의 세대차를 극복하는 동아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색깔을 가진 동아리- 수화를 배우는 교실, 공연장, 술집, 도서관.. 모든 걸 표방한다. 내년에는 수화발표제가 10번째를 맞이한다. 더욱 의미있는 해가 되도록 변화를 거듭할 수 있으리라 우리 모든 손말인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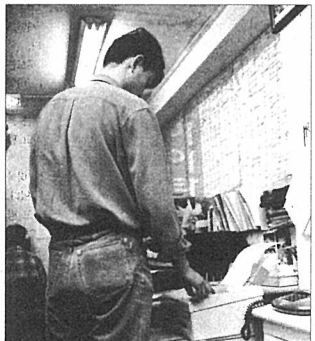
김 선 창
〈 동학·인도 2〉



인권하루소식 1000호를 맞아

팩스로 전해지는 '인권의 꽃씨'

최초의 인권전문지 … 매일 각종 인권문제 보도



'작은 신문 큰 소식' '신문에 안나는 것 싣는 별난 신문' '우리 시대 인권상황판' 등.

'인권하루소식'이란 작은 신문에 붙는 수식어는 참 많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전문 팩시밀리 신문인 '인권하루소식'이 지난 11월 5일(수)자로 지령 1000호를 맞았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92년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인권운동 연구모임인 인권운동사랑방(단체명은 93년 3월에 정해짐)이 지난 93년 9월 7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신문'이다.

인권하루소식의 시작은 지난 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간사로 일하던 유태훈씨가 과거 장기수와 관련된 인권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동료들이 사건을 알려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팩스를 선택했고, 알만한 모든 곳에 팩스를 보냈다. 곧이어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정황을 물어오는가 하면, 청와대와 안기부로는 세계 곳곳의 항의서한이 날아들었다. 그때 사람들은 '팩스로 보내는 신문, 그거 참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었고, 이 사건이 인권하루소식의 기원이라면 기원이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김수경씨는 "인권문제는 신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내 사람들의 관심이 끼지지 않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팩스라면 매일매일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후 93년 8월 준비 1호를 발간한 후 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이 정식으로 창간됐다.

인권하루소식은 '별난' 신문이다. 먼저 이 신문에는 배달부가 없다. 팩스가 바로 배달부 역할을 한다. 사진 한장 실리지 않는다(그림은 실림). 또 주5일(일, 월요일 제외) A4 2-3쪽 분량으로 발행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난 것은 큰 신문에는 볼 수 없는 인권상황이 실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안 나는 '특종'을 볼 수 있는 신문이지요. 또 일반언론이 외면하는, 인권문제를 조명하는 졸뿌리 언론의 진수를 보여주는 신문이기도 하구요"라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씨는 말한다. 4년동안의 인권하루소식을 돌이보면 인권특종이 정말 많다. 한국판 로드니킹 사건이라 불리는 공무원의 장애인 무차별 구타사건, 정신대 문제를 일본에 말기겠다는 정부의 포기선언, 사상의 이유로 스물아홉의 교수를 구속한 사회과학원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각종 인권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잊지 않고 있다. 올해 전자주민카드시행 반대사업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에 참가했다. 94년에는 북한인권문제토론회를 개최했고 고문피해자 소송과 고문피해자 가족모임 지원사업 등을 펼쳤다. 95년에는 고문백서 발간을 위한 피해자 사례수집 및 인터뷰 작업 등을 했고, 96년에는 연세대 사태 인권유린 실태조사 발표 및 경찰청장 고발 등의 활동도 펼쳤다.

이런 활동들이 사회에 점점 알려지면서 96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수여하는 6회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이 알려지면서 뜻하지 않게 정보를 캐려는 공안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도 정보를 캐려는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기자나 일반 독자라고 사칭하면서 각종 정보를 물어보는 일이 많다"고 얘기한다.

한편 김수경씨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길러야하고 현재 500여명정도인 독자층의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의 폭도 넓히고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지난 11월 4일, 지령 1000호 발행을 하루 앞두고 인권하루소식의 대표인 서준식씨가 인권영화제 개최·'레드헌트' 상영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그래서 인권하루소식의 1000호는 각계각층의 축하 만큼이나 서준식 대표의 구속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다. 김수경씨는 "현정권의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후퇴했죠"라고 말한다.

또한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탄압은 계속 되는데 '저 사람들 그럴만한 짓을 했겠지'라며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역사물'이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면 '이적표현물'이 되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것, 나아가 인권침해사건이 사라지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램이다.

허윤숙 기자

노동자대회, 권영길 후보 지원 결의

정치실천단 발족, 한총련 이적단체 반대 서명 진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은 지난 9일(일) 오후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97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의 노동자와 시민, 학생 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직금 전액보장 △정리해고 무효화 △택시완전월급제 실현 △기아·아시아자동차에 대한 3자 인수 방침 포기 등을 주장하고 '국민승리21'의 권영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배석범(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씨는 대회사에서 "정리해고, 파견근로, 퇴직금 박탈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총파업투쟁에 떨쳐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고용안정과 재벌경제 개혁, 사회복지 보장 등을 쟁점화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대선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이날 참가한 김형수(현대자동차, 30)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점은 정리해고 제로 인한 고용문제"라며 "인원감원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또 오춘산(택시기사, 42)씨 역시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고용안정이 필수"라고 말해 현장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근로파견제 도입 여부 등으로 불안정해진 고용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태일 노동상 수상식이 열렸다. 매년 11월 노동운동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어지는 전태일 노동상에 단체부분은 삼미특수강 노조가, 개인부분은 노옥희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수상했다. 삼미특수강노조는 포철의 인수 합병 당시 자행된 정리해고 조치에 맞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왔었다. 또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권영길 후보 담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노동정치실천단'도 이날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본대회에 앞서서 '전국금속노동자 총력결의대회'와 '전국운수노동자대회'가 열렸다.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과 자동차연맹, 그리고 금속연맹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리로 마련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현총련 정갑득(42) 의장은 "현재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금속 3주체가 뭉쳐 고용안정을 쟁취하자"고 말했다. 또한 운수노동자대회에서는 택시완전월급제 쟁취와 운수산별노조 건설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번 대회 기간동안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이 진행됐다.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철회와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서울지역 학생참가단'들은 "17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철회 서명에 동참했고, 한총련 구속학우 옄치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는 70만원 정도가 걷혔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권영길 대통령 후보와 배범식 부위원장, 병원노련 위원장 등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참가했다.

그러나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의 모습이 거의 없었다. 단지 학생들만이 단위별로 참석하거나 한총련 부당 탄압에 대한 서명을 받는 모습이 전부였다. 또한 노동자대회라는 자리가 너무 '국민승리21'의 권영길 후보를 밀어주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의 감정적인 지지 호소가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 조명이나 구체적 대안 제시를 통한 지지 호소의 부분이 아쉬웠으며, 그것이 정치세력화의 밑거름일 것이다.

박병수 기자

시론

안기부는 선거에서 빠져라

점점 가열화되어 가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열기속에서 안기부의 공안사건 발표를 통한 선거 개입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해 12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10조(불고지 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부활 이후 제기되는 인권유린 시비 및 공안사건 발표 때문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진성씨 구속 사건과 9월 부산에서 발생한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이것다. 특히 김진성씨 사건의 경우 수사권 부활 이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이라는 점과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 사건은 졸업생의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권·시민단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대적인 안기부의 발표와 달리 이후 변호인과 가족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이들의 혐의가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나 안기부법 개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인권단체는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안사건 관련 구속자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가 자백 강요를 위해 물고문을 했다는 폭로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나창순씨의 1심 재판 모두 진술 과정에서 폭로된 주장에 따르면 안기부는 나씨가 자신의 협의 사실을 부인하자 가혹행위와 함께 7월 18일, 지하 골방으로 끌고가 물고문을 하여 의식을 잃었고 이 상태에서 강제로 조서에 무인을 찍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씨 1심 공판에서는 안기부가 서울 시내 공중전화를 영장없이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동안 안기부가 영장없이 광범위한 사찰을 해 왔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고문과 사건 조작, 불법 감청 등 안기부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여러 사례에 의해 안기부법 개악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안기부가 확보된 수사권으로 몇몇 재야 인사를 구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소위 '북풍'과 공안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사실상 열어주는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과거 선거에서 여러차례 입증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선거 시기마다 등장하는 공안 사건 발표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만 보기에는 그 시기와 의도가 너무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고 이에 대해 야당은 안기부가 공안사건 발표를 통해 부당한 선거 개입을 자행해 왔다며 반발해 왔다. 그리고 현재 야당은 최근 시사저널을 통해 보도된 울산 부부 간첩사건이 지난 92년 대선에서 발표된 '제2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물론 안기부는 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어떠한 개입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지난 2월 인권협의회와 한길리서치의 공동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3%가 '정부나 여당을 위해 안기부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 여당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해 왔던 안기부가 이번 대선에서만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 믿기에는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안기부는 거듭나야 한다. 더이상의 정치 개입을 통한 과거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국민적 여망인 공명선거, 정책대결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저해하는 안기부의 개입은 우리 사회 모두의 불행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기부법 개정을 통해 독소적인 수사권 폐지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날치기 개악된 안기부법의 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 상 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

마석 묘역, 민족민주열사 추모비 세워져

지난 11월 8일(토)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는 '민족민주열사 추모비 제막식'이 열였다. 모란공원 안장 민주열사 유가족회 주최로 열린 이번 제막식은 사회각층인사들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소속 회원들, 열사 유가족 그리고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제막식에서 모란공원 안장 민주열사유가족회는 "27년이 넘도록 모란공원민주묘역에 묻혀 있는 분들의 뜻을 우리를 수 있는 어떤 자리도, 기념조형물도 없었다"며 "이 추모비가 모란공원민주묘역에 묻힌 열사의 뜻을 우러르고 우리 겨레 앞날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곳에는 58명의 민주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한편, 이날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날 9월 21일(일) 뇌출혈로 시망한 이형관(군산대 졸)군의 49제도 이곳에서 함께 열렸다.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버튼만 누르면 헤드폰을 타고 흐르는 음악,
티끌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소리지만
때로는 낡은 LP판의 투박한 소리가 그립습니다.
한번쯤 그 그리움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향기로 마시는 음악 한잔

CD와 테이프에 밀려 있던 낡은 LP판도 꺼내고,
턴테이블 위의 먼지도 닦고...
'지직..' 소리와 함께 첫음의 미세한 떨림이
온 방으로 퍼져갈때...
커피 한잔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무덤덤해진 일상속에서 이런 작은 감동 하나
찾아낼 수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번거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선율과 향기가 어울려 옛날 이 음악에 걸들였던
풋풋한 추억이 떠오르는 시간.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들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시간.
잃고 싶지 않은 생활의 단편들 -
그 자리엔 언제나 향기로운 커피 한잔.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Hitel:GO MAXIM

향기로운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동서 커피문학상 ●맥심배 생활체육 전국 스키대회 ●동서음악제 ●동서장학회 설립, 운영 ●국군 부대 자매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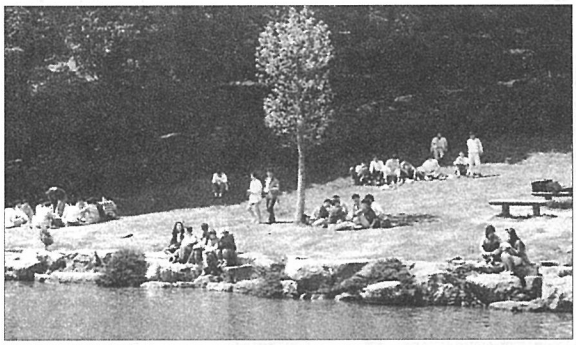
글 싣는 순서

1. 대학교육 분야
2. 사회정치분야
3. 경제분야
4. 통일외교분야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본보는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가치관 등을 대선후보들과의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질의는 교육, 사회정치, 경제, 통일외교 분야에 관한 것이였으며, 답변에는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후보가 응했다.

기획 첫회인 이번호에서는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들어보고, 대학교육 부분의 전문가가 진단하는 차기 정권의 교육정책 과제와 비교해본다. 편집자



질문 *교육은 국가 장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국가부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지원 및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한 후보의 대안을 듣고 싶다.*

이회창 후보 : 교육예산 GNP 6% 확보가 공약이다. 재원조달 방법은 △새로운 교육세원 발굴 및 교육세율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경직성 경비의 절감 등이다. 사립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조원의 기금을 집권말까지 조성, 사립대학에 지원하고자 한다.

이인제 후보 : 고등교육의 등록금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적 이유만으로 실력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 교육재정의 충당은 교육예산증액으로 해결해야 하나 부족한 부분은 미국처럼 교육채권 및 학교지원 교육복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권영길 후보 : 국가예산을 나눌 때 가장 범국민적으로 공공성과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사업에 최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과다한 국방비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교육재정을 마련하겠다.

질문 *학부제 실시는 많은 대학에서 대학교육수준의 문제와 공동체의식 저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제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회창 후보 : 학부제는 다양한 기초교양을 쌓은 뒤 원하는 학문을 전공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나 현재 그 본래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학부제를 강요하지 않겠다. 각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타협점을 찾아 자율롭게 운영해야 한다.

김대중 후보 : 학부제의 근본취지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경우 교육부의 주도 아래 일방적·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완·배려해 나가겠다.

이인제 후보 : 학부제가 지니는 장점도 많다. 대학원 중심대학인 경우 교육의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에 맡기겠다.

권영길 후보 : 앞으로는 복합문화시대이므로 여러 과의 기초과정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문의 복합화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복합화를 하려면 교과개편이나 교양강좌 신설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권을 넓히고 공동강좌(한 강좌를 여러 교수가 강의)를 통해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질문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졸업자 취업을 위한 후보의 방안을 듣고 싶다*

이회창 후보 : 최근 경기부진과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창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인제 후보 : 산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수급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고학력 과잉현상을 촉발시킨 것이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내지 철폐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권영길 후보 : 단순히 대졸취업문제만을 위한 방안을 따로 연구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산업구조재조정과 한국교육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다.

역대교육정책, 국가주도 · 일관성 없음 비판

교육철학 차별성 · 구체적 계획 부족해 …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분야처럼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수식어가 민망할 정도로 정책적 푸대접을 받아온 분야도 드물 것이다. 정책의 숱한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교육의 질로 보장받지 못한채 세계 유래없는 사교육비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15대 대선 후보들은 교육과 대학의 개혁에 관한 문제의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구체적 대안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획일적이고 일관성없이 이루어져온 것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은 별 격차가 없었다.

조순후보 역시 그간 교육정책이 '집권자의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국제경제상 필연적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경쟁을 통해 질적발전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학자다운 교육논리를 펼쳤다. 또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한 방안으로 일정한 요건에 한해 사립대학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지방대를 위한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은 올바르다고 보며 교육개혁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아직은 정책상 남아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함으로 교육의 세계화등의 논리를 펼쳐온 현정권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지나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대를 경기 혹은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구체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중후보는 '학교중심교육과 국가주도적 교육정책'을 가장 큰 특징이자 한계라고 지적하고 '교육에 국가관리, 정권관리적 기능이 부여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평생교육,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대학시장개방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제후보는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교육이 미국식제도를 본딴 측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영길후보는 민주진영의 대표주자답게 교육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역대정권은 교육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한 권후보는 '대학이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문과 진리탐구의 요람이 될 수 있어야한다. 직업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전반적,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길·조순후보는 교협, 학생회 등 운영위원회의 법제화가 '제단의 독주를 막고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운동 공권력개입에 대한 질문에 이회창후보는 '사회전체질서유지차원에서 고려해야할 문제'라며 '대학이 비합법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옳지않다'라고 답변했다. 그 외 대부분의 후보들이 학생운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나친 공권력개입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후보들은 현행 학부제에 대하여 기본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복안이 요구된다며 개혁의 의사를 비추었다. 또한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견해차이를 보였다. 또한 '[illegible] 교육기조의 개혁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공감하며 통일교육, 분단극복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후보는 없었다. 권영길·김대중은 현행 미국식학제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illegible]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illegible]〉

차기정권에 이런 교육정책을 바란다

교육, 정권안정 도구화에서 벗어나야

실속없는 세계화 · 경쟁논리…정부 · 민간 함께 개혁해야

해방 이후 오늘까지 교육분야는 평균 1년 6개월마다 한번씩, 36차례나 손질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교육'을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 탓에 빛 달도 못가 실패로 끝났다. '5·31 교육개혁안'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애초부터 폐단이 예고됐으며,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계화'를 앞세운 교육개방정책은 민족교육을 파산과 몰락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또한 '경쟁논리'를 앞세운 '대학서열화정책'은 한편으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일류병과 과열입시병을 더욱 부추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명문대와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그뿐 아니다. 대학자치권 및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도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공권력의 공공연한 학원사찰 및 침탈, 학생회 간부자격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한 학원안정화대책, 학보 사전검열 강화 및 발간정지 등 대학언론 탄압, 경상대 한국사회이해의 사건으로 대표되는 학문의 사상적 자유 박탈이 그러한 사례다.

대학민주화도 예전보다 더 후퇴했다. 총장직선제 폐지, 민주교수 재임용 탈락이 대표적인 예다. 서남대, 동서대 총장의 교비 유용, 덕성여대 이사장의 독단적 학교운영 등이 말해주듯 사립대학의 전횡과 부정비리도 여전하다.

이 모든 사실은 김영삼정부 5년동안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기보다 불행과 고통만 가져다 주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전면적으로 손질돼야 한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줄곧 미국식을 본딴 한국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사수·육성해야 한다. '통일시대'가 갖는 민족사적 중대성을 고려해 '반공교육'의 기조를 폐지하고, 민족을 우선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대학서열화정책'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지면 명문대 위주의 편중된 재정지원을 초래하는 대학평가에 의한 국고지원정책, 국립대학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학벌주의 개선, 지방대 육성 및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을 병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일류대병 및 과열입시병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권력의 학원사찰 및 침탈금지 △학생자치활동의 자유 보장 △대학언론의 자유 보장 △학문연구에 관한 사상적 자유 보장 △대학의 민주적 운영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칭 '대학자치법'의 제정도 절실하다. 이와 함께 구속·수배된 학생들의 전원 석방과 제적된 학생들의 전원 복적, 해직된 교수들의 전원 복적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악법도 철폐 또는 개정돼야 한다. 학교행정의 민주화도 시급하다. 획일화된 학사운영의 자율성·민주성 확립과 학교 예·결산 및 사학재단의 재산·재정 공개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립도 빼놓을 수 없다.

대학교육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실험·실습시설·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 도서관 열람실 확충, 장학금 확대 등이 이를 위한 과제다. 대학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시급한 것은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 감축과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폐지 및 미군기지 사용료 부과를 통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 또한 교육세 부과방식을 직접세로 바꿔야 한다. 전기료 인하,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완전 면세 및 원가공급제도 도입 등 간접적인 지원확대 역시 필요하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현장 주체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민교협, 국교협, 사교련, 대학노련, 전강노조 등 교육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현장 주체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교육의 구조적 병폐를 청산하고, △민족교육 △대학의 자주권 및 민주적 운영 △교육재정 확충 등 주요 과제를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97년 대선을 '참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 동 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실장〉

한국경제의 원동력 유공이 세계적인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화학에 있습니다.

힘있는 나라를 만드는 에너지·화학 — SK가 책임지겠습니다

舊사명	新사명
유공해운	SK해운
흥국상사	SK에너지판매
유공가스	SK가스
유공 목재케미칼	SK목재케미칼
중앙석유	SK석유

★기획/제작 : SK홍보실 / 제일기획·CD우세치·CD최진홍유하·CW이상문·AE 문태인 이승욱

한국의 힘 — SK 주식회사
http://www.skcorp.com

새 시 대 새 총 장 새 외 대

우리학교 역대 총장사

재단·정권의 논리속에 굴절된 대표

학내·외 격변기 때마다 임기 못 채워

<글 싣는 순서>

1. 우리학교 역대 총장사
2. 첫 '직선총장'의 출범과정과 의의
3. 안병만 총장 4년 평가
4. 차기총장의 상과 과제

수북한 행정서류의 가장 오른쪽칸에 도장을 찍는 최고 결정권자. 대학교권의 '권위'인 동시에 지성인으로서의 '명예'의 상징. 총장은 대학의 행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최고 운영권자다.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 '직선총장'이라는 외대역사의 한줄을 기록하고 출범한 안병만총장체제가 오는 12월 완료된다. 따라서 대학의 구심점인 총장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가의 문제는 대학구성원들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킬 수 밖에 없다.

총장선거의 과정은 학내구성원들이 외대의 희망을 함께 그려보는 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내구성원들의 바램과 지향을 집약한 대학운영은 학내구성원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받아안고 선출된 총장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장이 아닌 교수, 학생, 직원 우리 모두의 총장이어야 하기에.

본보는 총장선출기간을 외대의 현주소와 21세기 외대의 좌표를 논의하는 구성원들의 '열린 토론'의 장으로 일구기 위해 이번 시리즈를 기획한다. 이밖에도 학내구성원들이 원하는 총장의 상과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담아내고자 한다.

총 4번 연재중 처음 게재하는 이번 호에서는 학내외 역사의 수레와 함께 변천했던 우리학교 역대 총장사(史)를 다룬다.

편집자

1954년 개교이후 80년까지 우리 학교는 총장이 없고 학장이 학교를 총괄하는 단과대학이었다. 이 당시 전체적인 학원분위기는 자유당과 유신정권 등 독재권력에 대한 가열찬 반대투쟁과 이에 대한 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휴강, 개강, 또 휴강.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격동의 흐름처럼 이 당시 학장들의 재임기간은 정해진 임기가 얼마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했다.

박술음, 최완복 교수가 두번씩 17년, 7년동안 각각 학장직을 수행하며 외대발전을 주도했다. 반면 한종원, 권중휘, 조규철 학장 등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60년, 61년, 80년에 각각 취임하여 1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이후 남한사회변혁의 큰 획을 그었던 80년. 우리 학교 교수단은 전국 최초로 '계엄령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선언문으로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학내 10여명의 주요교수들이 '보직금지'조치를 당하게 되고 이를 낭독한 조규철 학장은 학장 취임 3일만에 중도 사퇴하게 된다. 이 당시 조규철 학장뿐 아니라 당시 교수선언에 참여하여 보직금지 조치를 당한 10여명의 교수는 중진급 교수들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채 후임 학장을 물색하던 대학당국은 영국에서 연구중이던 김동선 교수를 서둘러 귀국시킨다.

이 시기부터 우리 학교는 종합대학으로의 승격과 함께 본격적인 '총장체제'가 가동된다.

교수들, 파행적 운영에 '반기'

김동선 초대 총장(1980. 8~1984. 2)

김동선 학장이 학장과 총장을 합하여 재임했던 80년도 8월부터 84년 2월까지 본교의 주요특성은 종합대 승격과 용인배움터를 건립함으로써 시작된 '이문·왕산 시대'의 개막이다. 2천년대 용인배움터로의 이전을 표방하며 장황하게 시작했던 용인배움터 건설은 재원과 대책없는 정책으로 양적팽창에만 치우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어학실습실, 도서관은 커녕 강의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채 수업을 시작했을 만큼 준비가 미비했던 것이다.

서울배움터와 동일학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 또한 격렬했다. 수업거부는 물론 시험거부도 감행했으며 이에 13개 과회장 전원이 대학당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총장 재임시 크게 불거졌던 것은 총장과 교수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른바 '연판장 사건'이다.

고려대 출신인 김총장은 취임 즉시 비동문, 비외국어계열 교수를 등용해 동문교수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그러던 중 동문출신인 모교수를 재임용제도를 악용, 해임시키려 한 의도가 발각되자 동문교수들은 김총장의 파행적 인사운영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당시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들의 열의와 총장', 재단에 대한 비판이 대단했다"며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김동선 총장은 84년 2월 3년 임기를 마감한 채 황병태 교수에게 바톤을 넘겨준다.

학교발전보다 재단의 부축적

황병태 2대 총장(1984. 3~1987. 12)

우리 학교 2대 총장 황병태 교수의 취임은 5공 정권의 '학원자율화' 바람과 함께 시작된다.

△재단자산 내역 공개 △학적문제 해결 △마스터플랜의 구체화를 내걸고 한달여간의 수업거부, 점거농성을 벌인 용인배움터 학생들의 85년 학원민주화투쟁은 제적, 징계 등의 결과를 낳는다.

그후 87년 '부실재단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된 양배움터 학생들의 거센 투쟁은 박승준 재단전무이사와의 합의(동문·학부모의 재단이사 영입, 세곡동땅 매각)와 황총장의 퇴진으로 매듭짓게 된다.

또한 우리학교의 교수들은 학원자율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독재정권의 서슬푸른 폭압에 항거해 매 시기마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우리 학교 학생들은 87년 6·10항쟁때 연인원 3만 3천명이 참가하는 등 시대적 부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이렇듯 학내외 격변기에 황총장은 학생들앞에서 자신의 철학과 학교운영정책을 자신있게 말했던 나름대로 소신있는 총장이었다. 그러나 '유신퇴물' '정치총장' 등의 비난과 함께 학생들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재무, 행정이 굴절된 학교의 최고대표였다는 점 △재단의 1백7억 부채와 토지매입 등이 재단이사진의 상호비호아래 학교발전보다는 재단의 사적인 부의 축적에 맞춰졌다는 점 △교수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총장이 아닌 재단의 임명 총장이라는 점 등이다.

학생들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함께 그는 교수나 직원들로부터도 그리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다.

"나도 여러 학생들처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뭔가 할 것이다"는 말을 남긴 채 황총장은 바로 통일민주당 부총재에 입각한다.

4대 이강혁총장의 재임기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등록금투쟁과 정원식 국무총리 항의 시위등 학내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기간이었다.

실천력 부재… 기대못미친 동문총장

박필수 3대 총장(1988. 3~1990. 3)

87년 황총장의 사임이후 총동문회와 학생들은 '외대발전에 의지가 뚜렷한 사람'의 조건으로 동문출신 총장을 요구하게 된다. 당시 총동문회(회장 김현욱)에서는 조규철 교수(불어과)를 총장후보로 재단에 건의한다. 그러나 이미 재단은 박필수 교수를 내정하고 있었다.

이에 처음에는 크게 반발했던 동문들과 학생들은 첫 동문총장 탄생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묵인하게 된다.

"학교발전을 위해 무원칙, 무분별한 재단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취임당시 소신을 밝혔던 박총장은 첫 동문출신 총장이라 '동문총장'으로 더 잘 알려졌다.

또한 박총장의 이런 발언들은 학교발전에 대해 '이젠 뭔가 이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다. 그러나 그의 탄생배경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에게까지 좋은 이미지로 새겨지지 못했다. 또한 박총장에게는 협상테이블에서는 항상 뚜렷한 논리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평가가 따라다녔다.

88년부터 우리 학교는 양배움터 총학생회가 분리되고 선거도 독자적으로 실시된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요구해온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양배움터 중복학과의 문제점 극복과 독자적 학문발전을 위해 동구어과 단대분리, 지역학 도입 등을 요구하며 '학재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대학당국이 등록금 조절위원회(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와의 아무런 합의없이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자 학내는 또다시 술렁인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속에 박총장은 학내구성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채 정계개편을 맞아 상공부장관으로 입명된다.

사문화된 학칙부활… 학생탄압단초 마련

이강혁 4대 총장(1990. 4~1994.3)

90년 4월, 박필수 전 총장의 갑작스런 입각으로 당시 서울배움터 이강혁 부총장은 총장직을 넘겨받는다. 이총장 재임기간은 끊임없은 학자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90년 3월 등록금고지서 반환투쟁을 시작으로 91년 1천 8백여명이 제적통보를 받은 총학생회로 등록금납부투쟁, 정원식총리항의시위 그리고 92년 인사권문제를 둘러싼 직원노조의 27일간의 파업... 이렇게 이총장이 학내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학내와 학외의 상황변화에 있다.

우선 사립학교법의 개악으로 등록금책정이 대학에 위임된데다 '등록금 수익자부담원칙'이 발표에 따른 강력한 반발로 등록금투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온 언론을 도배하며 학생들의 도덕성이 매도당했던 정원식총리에 대한 항의시위로 이총장은 8명의 관련학생을 제적시키고 일부 국무위원의 폐교경고에 총리앞에 머리숙여 사죄까지 하게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총장은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지만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학생들에게는 △재단 전입금의 확대 △의대설립 △용인 교통문제해결 등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정원식총리항의시위를 이유로 사문화된 학칙들을 부활, 학생탄압의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과는 대학발전위원회나 직원대표기관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며 직원노조의 파업기간에 호텔에서 직무를 보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외국어교육연구소 폐지와 버마어과, 몽고어과 신설승인을 얻어내지 못한 점으로 어학계교수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용인배움터에 소홀했던 점 등도 잘못으로 지적됐다.

곽 근 영
〈인문·사학 4〉

레드헌트와 레드헌터

O…인권하루소식 1000호 발행을 하루 앞두고 대표 서준식씨가 구속됐으니,

이유는 알아본즉 '레드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기 때문이라네.

"'레드헌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는데"라며 크로니클자 의아해하니,

짧새 왈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거야"라더라.

화가난 크로니클자 사냥하며 한마디 하니 "그럼 너희 의도는 '레드헌터'냐"

〈일일〉

O…항간에 양심수 논란이 한참인 가운데 대통령의 차남 현철이가 콧방귀 뀌며 출소를 했는데...

이날 양심수 어머니들은 억장이 무너져라 목놓아 우셨고 이를 보던 크로니클자 통탄하며, "보석있는 자는 보석으로 풀려나지만, 양심수는 양심만으로 절대 석방 안돼더라"

〈승2〉

O…98년 학생회 선거를 맞아 이미 교육부 지침은 떨어졌음에. K대 경우 총학생회장 후보의 성적이 안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본부 방마저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2학기 내내 학생 자치권 탄압을 벌여온 대학 당국이 이번 선거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의 크로니클자는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학생들이여! 눈을 크게 뜨세요.

〈석〉

O…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너역시 더 이상 네가 아니라네~ 삶이 무료한 해커의 심심풀이에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그런 세상.

인간복제의 세상이 아니라 전자주민카드의 세상이라네.

〈정〉

전자주민카드 세상

비둘기칠판

왕산골

□ 알립니다

• 빛모습에서 Happy Together를 상영합니다.
때:17,18일(월,화) 늦은 4시 30분
곳:후복관 소극장
입장료:1000원

〈빛모습〉

• 반포고 동문회를 개최합니다.
때:21일(금) 늦은 5시
곳:승차장 깡통에서 만난후 강남 라인하이츠 호프로 이동

〈반포고 동문회〉

• 중앙노래패 해무리가 정기공연을 합니다.
학우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때:21일(금) 늦은 6시 30분
곳:자연대 강당

〈해무리〉

□ 축하합니다

• 20일 언론협의회 의장 이재석형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왕산 언론협의회 식구들이〉

• 손말사랑회 96학번 김경민,두화경의 생일을 늦은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요.
(왜 태어났냐? 만수무강하길...)

〈손말사랑회〉

• 수학·통계학부이자 해무리인 97학번 김진수군이 22일에 생일을 맞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진수야,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길.....

〈친구들이〉

□ 수고하셨습니다

• 하나됨으로 새롭게 열어가는 10대 투쟁 체코어과 학생회 일꾼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구요, 98년도에도 열심히 살아가자구요.

〈기수,창석,원희,미영,은정,철화〉

이문벌

□ 알립니다

• 목요음악반 제 25회 가을 정기 음악제
때:20일(목) 늦은 6시
주제:오페라 탄생 400주년 기념
내용:오페라 개관, 오페라 강당법,아리아와 유영가수,오페라 집중강당의 구성

〈목요음악반〉

• 형식이가 군대를 간다.
형식아! 잘 다녀와. 고참들에게 이쁨받는 졸병이 되길 바래

〈Tu 학생이〉

□ 축하합니다

• 지났지만 7일이었던 정민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법대 학생회〉

• 29일 혜영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승희〉

□ 찾습니다

• 지난 주 금요일 늦은 1시경 1606에서 잃어버린 우산을 찾습니다. 황토색 체크무늬이고, DAKS상표에 나무 손잡이 입니다.
연락 : 015-908-4601

〈아랍어과 고정민〉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용인, '전태일 추모제' 열려

기독교학생회 주관, 전태일정신 현대적 복원 목표

용인배움터 기독학생회(SCA)는 전태일 열사 사망 27주기를 맞아 오는 18일(화) 오후 5시30분 공대 208호에서 '전태일 추모제'를 개최한다.

기독학생회는 △학생회관에 분향소 설치 △후복관 3층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상영 등의 홍보활동을 행사 당일까지 벌인다.

18일 본 행사는 김해성목사 주관하에 예배형식으로 진행되며, 전태일 영화와 함께 전태일 이후의 노동운동을 담은 슬라이드도 상영된다.

기독학생회 회장 김영희(서양·러시아어 2)양은 "많은 기독교 동아리가 연합해 행사를 치뤄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독교학생회에서만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홍보나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태일 정신의 현대적 복원을 목표로 하고, 이런 전태일 정신을 우리 만의 고백이 아닌 모든 학우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용인, '서대장 영치금 마련위한 하루찻집' 열려

용인배움터 이태리어과 학생회에서는 오는 20일(목) '10대 서양학대 학생회장 김창섭(서학·이태리어 4)군 영치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어문관 로비에서 열 예정이다.

이날 찻집에서는 △유자차 △녹차 △율무차 △배추차 △쌍화차 △동글레차 △팝콘차 등 여러 종류의 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태리 전통 음식점도 함께 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서 이탈리아 전통 음식인 스파게티와 피자를 이탈리아 전통 요리 방법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대해 이태리어과 과회장 조창환(3)군은 "김창섭 서대장은 1천 8백 서대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며 "비록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찻집을 여는 것이지만 학우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르익은 선거철 양 배움터에서는 바야흐로 과학생회 선거철이다. 서울배움터는 현재 신방·중국어·이란어·일본어 4개학과가 이미 학생회장 선출을 마쳤으며, 나머지 과는 다음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일본어과 학생회 선거 모습이며, 이날 단신으로 출마한 2학년 류승호군이 95.8%의 찬성률로 학생회장에 선출됐다. 임승희 기자

상경계열 과 설명회 18일

계열제에 대한 논의·각과 설명

서울배움터 상경대 1학년 계열학생회는 오는 18일(화) 5시 30분 교수연구동 소극장에서 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종걸 상경대학장과 각 과 학과장 및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교수소개 △각 과 설명 △계열제에 대한 논의 △설문조사 및 과성향조사와 뒷풀이로 이어질 예정이다.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선배·교수들과 친분을 쌓음으로써 과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자하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이와 관련, 상경대 1학년 계열학생회장 변부환군은 "원칙적으로는 계열제를 폐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폐해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런 행사가 상대의 열악한 과학생회를 재건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용인, '무역인의 밤' 개최

교수, 학생, 졸업생이 하나가 되는 자리될 터

용인배움터 무역학과 학생회는 오는 22일 (토) 침단동 프리마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무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무역학과 졸업생과 교수, 재학생들이 참여하며 △한 해 평가 △교수의 격려사와 간부들의 인사 △식사 △공연 △선후배 만남의 자리 △뒷풀이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행사의 특징은 1, 2학년으로 구성된 노래, 율동, 게임 등의 공연이며 그외에 학교내 동아리 마스터피스도 연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회장 박승규(경상·무역 3)군은 "너욱 더 많은 무역인들의 참여를 바라고 다른과 학우들의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린다"며 "무역학과의 많은 식구들이 어울릴수 있는 단합과 행사이니만큼 예년 못지않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해외문학회' 세미나 열려

토마스만의 작품으로 논문 발표

지난 14일(금) '해외문학회'가 가을 정기세미나를 가졌다. 카프카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독일작가 토마스 만의 작품 '마의 산(Der Zauberberg)'에 대한 해석을 '대립적 사상체험을 통한 조화' '마의 산에서 한스의 정신적 성장' '순간에서 영원으로, 삶-죽음에의 영원한 동경'의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후 관객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원인 최창원(법·법학 2)군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전으로 칭송받고 있는 마의산이란 작품에 대한 평가를 관객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며 행사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한편 같은날 대학원 건물에서 중국어과 '중국한대문학반' 7회 심포지엄으로 곽말약(郭沫若)의 첫시집 '여신(女神)'의 문학세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1920년대 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 중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시집 '여신'의 전편에 흐르는 주제에 대한 분석과 그 한계점 그리고 그의 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사상의 조류인 범신론과 낭만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서울배움터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김형동군을 만나

이사람

"선거를 통해 학생회의 진정한 주인됨을 느꼈으면 한다"

"지금까지 학생회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 바라는 학생회가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서양·영어 4,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군은 이번 선거에 학생들 참여의 중요성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눈과 귀를 통해서 다가가는 요란한 선거가 아니라, 잔잔하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방향을 밝혔다.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김군은 "안팎으로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멀어져있다. 그러나 학생회는 일꾼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외대학생 모두가 학생회의 일원이다"며 "따라서 이번 선거를 통해 학우들이 외대의, 학생회의 주인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위원장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24시간 대기와 더불어, 후보들간의 상충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의하면서 힘듦을 느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문제에서 난처하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군은 "어제 진행된 선거시행세칙 및 조정회의에서 각 후보들이 한걸음씩 양보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에서 학생회의 희망을 보았다"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최선을 찾는 과정이다. 양비론적 시각이나 포기가 아니라, 각자가 바라는 98년 외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과 의무를 다했으면 한다."라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강조했다.

임승희 기자

'벤처기업의 이해와 전망' 강연회 열려

창업분위기 돋우는 역할 목적

오는 18일(화) 오후 2시 서울배움터 대학원건물 104호에서는 '벤처기업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연사:일진벤처 유효상 사장) 초청강연회가 열린다.

서울배움터에서 곧 신설할 예정인 창업동아리 '콜럼버스(가칭)'에서 준비하고 경제경영연구소와 MIS연구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학내에서 창업의 분위기를 일으키고 새 동아리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리회장인 최우일(상경·경영 3)군은 "경제난 속에서 벤처기업 붐이 일어남에도 불구, 외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창업은 공대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전국고교생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 선발

오는 21일 시상식, 교육부장관·본교 총장 참석

교육부가 주최하고 선경그룹의 후원하에 우리 대학교가 주관 실시한 제 8회 전국고등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시상식이 오는 21일(금) 오후 2시에 서울배움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제8회 대회는 지난 6월 20일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의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에 오른 472명이 9월 6일(토) 우리 대학교에서 본선대회를 치루었으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등 6개 외국어 영역에서 240명의 입상자를 선발하였다.

<서울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일정>

단과대	투표일	후보	
서양어대	25일	1. 차재훈(포르투갈어 3)·정기용(영어 3)	2. 홍성준(독어 3)·김나리(불어 2)
동양어대	18·19일	1. 이준석(이란 3)	2. 김용현(이탈 3)
사회대	19·20일	1. 김동혁(정외 3)	2. 이현수(신방 3)
상경대	2·3일	후보자 없음	
법대	20·21일	권용덕(법 4) 이동원(법 2)	
사범대	24·25일	김진원(영교 2)	
동아리연합회	20일	1. 이종근(서반 3)·윤수란(한교 3)	2. 이상건(불어 3)·조경래(법 3)

주간일정표

17일(월)	18일(화)	19일(수)	20일(목)	21일(금)
	● 동아리 '빛모습' 춘향사설 상영	● 동아리 'NSM' 콘서트	● 용인 서대장 영치금 마련 하루찻집 ● 용인 이태리어과 예술제	● 시범대 종합체 공연

정외과 '반란' 정치영화제 컴퓨터 프로그램 전시회 (17일 ~ 20일)

비트님어과 '30주년 기념 예술제' (18일 ~ 20일)

서울, 동대 : 사회대 선거
용인, 치대 : 총여 선거 (18일 ~ 20일)

98학년도 전기 대학원생 모집

세계경영대학원(야간)

1. 모집정원
가. 식사학위과정 : 각학과 00명
나. 연구과정 : 각학과 00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 석사 -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경보관리학과, 보험경영학과, 증권금융학과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과, 세계지역연구학과

3. 전형방법
가. 식사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나. 연구과정 - ① 서류전형 ②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97년 11월 3일(월) ~ 11월 25일(화)

5. 전형일시 : '97년 11월 29일(토) 오후2시
* 국가고급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는 특별전형함.
*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무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무대함
* 국가공무원, 군, 검, 각급학교 교직원에게는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TEL:961-4109, 962-7118)

정책과학대학원(야간)

1.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 00명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보전공, 공공행정전공
신문방송학과 - 신문전공, 방송전공
외교안보학과 -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광고홍보학과 - 광고전공, 홍보전공
환경정책학과(신설) - 환경정책전공, 환경감사전공
나. 연구과정 : 각 학과 약간명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3. 원서교부 및 접수 : '97년 11월 3일(월) - 11월 25일(화)

4. 전형일시 : '97년 11월 29일(토) 오후 2시

5.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영어관사진 4매, 졸업·성적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특전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국가공무원(군·검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O 문의처 : 경영정보대학원 교학과 961-4093, 962-3950

외국어연수원

20주 정규과정 외국어연수원생 모집

1. 모집과정 : 주·야간제
야간제 18.30 ~ 21.50, 1일 3시간, 주 5일
2. 모집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불어, 알레어, 인도네시아어, 서반아어, 베트남어, 이태리어, 브라질어, 타밀어 등 24개 언어
3. 대상 : 만 18세 이상 자격제한 없음
4. 교육기간 : 1996년 2월 2일(월) ~ 6월 19일(금) 20주간
5. 수업시간 : 주간제 09.00 ~ 16.50, 1일 7시간, 주 5일
6. 반편성 : 각 반별 15명 단위로 편성
7. 원서교부 접수기간 : 1997년 11월 10일(월) ~ 11월28일(금)
(09.00 ~ 21.00 ◀ 신학순 파감)
8. 문의처 :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O TEL 961-4174/5, 962-7119 FAX 962-6575

외국어 연수원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추가)

1. 신청 대상 : '97학년도 졸업(' 58. 2. 28) 졸업예정자
2. 신청 기간 : 1997. 11. 10 (월) ~ 11. 21 (금)
3. 신청 장소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는 교무과)
4. 제출 서류 : 무시험검정원서(소정 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5.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나. 교직과정 이수자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미제출자, 전공 및 교직성적 각 3.00 미만인 자, 전공별 기본 이수과목 미이수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97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접수

1. 신청 대상 : 교직과정 설치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제 4학기 등록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2. 신청 기간 : 1997. 11. 10 (월) ~ 11. 21 (금)
3. 신청 장소 : 사범대학 교학과 (◀ 용인캠퍼스는 교무과)
4. 제출 서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소정 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는 면단이 '교육부에 등재' 되어야 졸업시에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사범대학장

9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예정 공고

'199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예정과목을 공고하니, 수강희망학생은 소정 기일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기 바람.

1. 개설예정과목

구분	교과목명	(교과목 코드)	학점(시간)	강의 시간
교양	한국근·현대사	(7652)	2 (2)	09:00 ~ 10:40
	국제관계의 이해	(7415)	2 (2)	10:50 ~ 12:30
	현대사회의 가족	(7454)	2 (2)	12:40 ~ 14:20
	한국사입문	(7361)	2 (2)	14:30 ~ 16:10
	문예사조사	(7739)	2 (2)	09:00 ~ 10:40
	한국민속사	(7937)	2 (2)	10:50 ~ 12:30
	국어직문	(7316)	2 (2)	12:40 ~ 14:20
	매스컴의 이해	(7418)	2 (2)	14:30 ~ 16:10
	심리학 개론	(7433)	2 (2)	09:00 ~ 10:40
	미학입문	(7742)	2 (2)	10:50 ~ 12:30
	환경과 사회	(7928)	2 (2)	12:40 ~ 14:20
	중도사회의 문화	(7653)	2 (2)	14:30 ~ 16:10
	환경과 삶	(7526)	2 (2)	09:00 ~ 10:40
	사회학개론	(7430)	2 (2)	10:50 ~ 12:30
	서양문학사	(7331)	2 (2)	12:40 ~ 14:20
	법학입문	(7424)	2 (2)	14:30 ~ 16:10

2.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1997. 12. 1(월) - 12. 4(목) - 4일간
3. 수강신청 및 등록장소 :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4.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감한 후 30명 이상이 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폐강되는 교과목은 수강료를 반환함. (계절학기 수강증 및 학생증 지참)
5. 실적 적용 : '97. 2학기 성적에 추가반영됨 (성적경정제 신청과목일때는 적용안함)
6. 휴학생 및 복학예정자자와 7개학기 졸업등록학점이 134학점(법학과 144학점)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수강신청 할 수 없음
7.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확정발표 : 1997. 12. 11(목)
8. 수업 기간 : 1997. 12. 22(월) - 1998. 1. 16(금) - 16일간(K.K장 보충 위치검수일, 공휴일제외)
(* 수강신청제한 : '96학년도 전 수강신청을 30점으로 제한함)

교무처장

차범근 감독과 김용옥교수의 논쟁을 보면서

타인의 생활양식 이해하고 포용하자

차감독의 종교 발언 확대해석 말아야

조금은 때가 지난 논외인 것 같다. 벌써 며칠 잠잠한 논의를 이제야 다시 들춰내는 기분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기의 적절성을 떠나 일시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항상 기회만 있으면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비론의 한 입장에 불과하지만 무엇이 옳음에 더 근접해 있는 태도인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근래에 차범근감독의 종교적 발언에 관한 문제가 신문기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특정종교에 기초한 발언을 공공연히 편파적(?)으로 말했다는 비판 때문인 것 같다. 필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이다. 그러나 차범근감독에 관한 이 문제를 굳이 우리나라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논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는 한 개인의 종교 자유의 보장과 그 침해에 관한 논쟁들이 아니라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이외의 종교와 타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인정과 그 포용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들은 치열해져가는 생존과 각박해진 사람들의 가슴으로 인해서 나 이외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을 경우 가혹한 비판을 가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각양각색이고 다양하지만,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사람들마다 그리 다르지 않은 당위성이 내포된 방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이 정한 어떤 범주에 들지 않는 타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혹할 정도로 비난 한다.

차범근감독의 "하나님의 은총으로…"라는 식의 인터뷰는 비판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인으로서의 방송에 대한 인터뷰로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일응 동감이 가기도 한다. 하나님이라는 자신과 한 종교의 절대자 이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대사가 물론 더 적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신도의 입장에서는 비신도인 필자의 한 사견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차범근감독이 한 멘트의 적절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한 종교의 신자로서 한 말에 대한 비판을 비판하고자 함이다. 그는 김용옥교수의 글에 대한 해명문에서 그러한 멘트는 광소 자신의 생활신조의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차범근감독이 그러한 멘트를 통해서 선교를 하거나 특정종교를 강요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는 그의 종교적 양심대로 자신이 믿는 절대자에게 감사했을 뿐이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어야만 한다. 경기에 이겼을 순간 그가 가장 감사하고 싶었을 대상이 그의 종교적 절대자라면 이를 표현하는 것이 그리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는 공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의식하여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포기했어야 하는가. 필자는 비록 특정종교의 신도는 아니지만 경기중 두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승리를 기도하는 차범근감독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종교를 위한 연기로 보이는가. 공인은 기도도 해서 안돼고 절대자에게 감사해서도 안되는가. 경기의 승리 후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물은데 대해 가장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단지 종교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리 논란이 되어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좀더 넓고 열린 가슴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생활양식이 사회적으로 악이 되지 않는 이상,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번 일에 접하더라고 그 내부에서 포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부에서 비판이 생기고 할 말이 있더라도 한번 더 참으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서 점점 더 가슴은 넓어지고 열려갈 것이다. 침학교수를 지낸 바 있는 또 한명의 공인이 종교에 대해서 본능적인 유치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 팀을 도왔다면 그럼 아랍선수들이 졌을 때 알라신은 뭐했느냐"라는 식의 비판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분도 자신이 공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과 환경이 우리를 좀 더 바쁘고 각박하게 만들더라도 그럴수록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월드컵 본선에서도 차범근감독의 독실한 신앙과 열렬한 기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차범근감독과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승리를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 혼자서만 힘겹게 우리 팀의 승리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부처님, 알라신 등 우리 국민이 믿고 있는 모든 종교적 절대자들이 우리팀의 승리를 도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각자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자.

류창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관전평 - 한일전 축구를 보고

한 · 일전 패배를 잊지말자

어선 불법 나포, 망언등… 정부 적극적 대응 필요

축구 한·일전, 11월 1일 잠실벌에서의 함성은 매우 뜨거웠다. 우리의 응원문화를 조직화하는데 공헌한 '붉은 악마들'의 모습은 우리의 민족의식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했다. "당연히 우리팀이 이기는데 몇대몇으로 승리하느냐가 문제죠!" 한국민이라면 대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나 결과는 0:2, 우리의 완패로 끝났다. 국민에게 멋진 승리를 안겨다준 도쿄에서와는 달리 경기내내 졸전을 펼치며 점신력, 기동력, 기술,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일본에게 압도당했다.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고 PC통신에서는 혹시 일본에 일부러 져준 것이 아니냐란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렇듯 축구경기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을 때 , 10월 29일 개킵호 선장 이몽구(李夢九)씨가 일본에 의해 '불법납치'되었다. 이유인즉 우리 어선이 일본이 정한 직선기선 영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본법원이 한일어업협정이 우선이라며, 자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일본법원의 판결여부를 떠나서 일본의 이같은 행위는 국제법우선과 유엔해양법협약을 무시한 처사로 애당초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고 전세계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만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같은 짓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11월 6일 우리는 또다른 씁쓸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2년여 난공사 끝에 완공한 '독도접안시설에 대한 준공식'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서, 그것도 해양수산부가 아닌 일개 지방관청인 포항지방해양청 주관하에 간소히 치뤄진 것이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에서 준공식을 하지 않은 이유를 독도해역의 날씨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준공식을 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냉철히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1월 2일 KBS TV 일요스페셜은 한국축구의 현실을 충격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골차이로 크게 이기던 한국축구가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부까지 일본에게 지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축구전용구장은 부족하고 관중이 없는 한국프로 축구와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마케팅전략으로 지역연고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제 2의 도약을 준비하는 J리그와의 비교는 2002년 양국간의 실력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내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불황으로 국민들이 즐거움을 느낄만한 여유가 없던 와중에 축구의 연승행진은 국민들을 일체화시키고 신바람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을 과소평가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감정에 치우쳐 들떠 있을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두를 우리와 일본간의 바다를 둘러싼 분쟁으로 돌려보자. 섬나라인 일본은 일찍부터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영토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쓸모없이 생각될 지도 모를 작은 섬까지도 영토로 인정받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불법어선납치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무리한 직선기선이지만 군사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주장을 하면 언젠가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정부는 우리 어민이 부당하게 구속되어있는데도 이씨의 신병이 어떠한 상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반복된 불법어선납치에 적절한 사법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한 독도에 대해서도 명백히 우리가 실점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풍부한 사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독도접안시설 완공에 대해 일본정부대변인인 관방장관과 일본외상,심지어 하시모토 총리까지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망언을 하였는데 외무부 입장은 기존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도대체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주권수호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자신의 만행을 진심으로 사과하기는 커녕 역사왜곡을 저지르는, 도덕성이 결여된 국가이다. 국제관례까지 무시하며 양국간의 기본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일본에게 정당한 국가관계가 무엇인지 꾸짖어 일깨워주는 행위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의무이다. 일본의 국력이 무서워서, 경제종속의 심화로 어떤 보복이라도 있지는 않을까해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내일을 준비하는 심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축구 한·일전 패배를 교훈삼아 무섭게 자국의 이익을 꾀하는 일본을 경계하며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당당히 우리의 것을 주장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기만
〈동학 · 중국어 4〉

사진 수필

「옛날 옛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성숙치 못하던 그 시절 얘기를 해줄께. 생산현장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노조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정리 해고제로 실업자수는 백만에 가까워져가고, 고용불안으로 편할 날 없고… 죽도록 일해 봤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

아버지는 노동자대회에 함께 온 아이에게 차마 현실을 그대로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지난 9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있었던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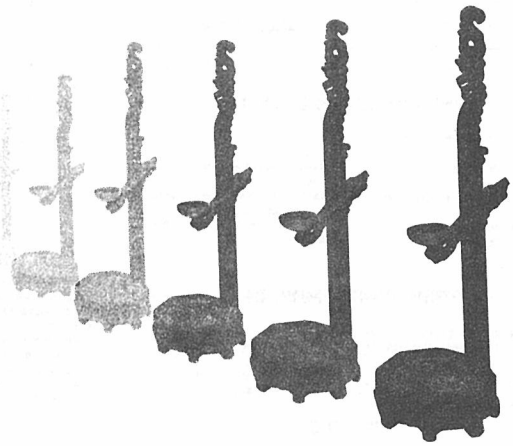
임승희 기자

혼자보기 아깝다

혼자만 감상하기아까운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학작품, 서예, 미술, 광고 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학보에 실어보십시요

등잔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등잔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잔은 그리 밝지 않으며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며 온 방을 비춥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낮은 곳에, 더 약한 편에, 더 정의로운 일에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갇힌 사람들
우린 이들을 '양심수'라 부릅니다. 현재 1000여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감옥을 가린다고 양심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들이 소중한 것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
양심수는 당장 석방되어야 합니다.